朝鮮日報
夕刊 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面

各國共同戰線되고 日本主張에 肉迫

「安全感平等」原則의 日本主張에 英米佛等一齊反對

永野日本全權

【倫敦十二日發聯合】第一委員會의 議事는 반듯이 日本全權團에 有利하게 展開되지안코 英米佛 三國代表以下各國은 共同戰線을 펴서 共通最大限反對乃至質疑를 提出하게되엇다 各國代表中佛國代表部만은 日英米三大國과 同一水準에서 取扱되지안는다는 「手續上의 理由」로 十二日의 委員會를 契機로 依然反對의 旗色을 闡明하엿다고 解釋되는데 英米佛三國 乃至 自治領代表의 主張은 要컨대 「安全感平等」의 原則에서서 均勢原則에 立脚한 日本政府의 軍縮에 挑戰하고잇다고 보이는바 日本全權團에서는 公正妥當한 不脅威不侵略의 大原則에 基야 끗까지 世界列强을 相對로 共通最大限確立에 邁進키로되엿다

一、華府條約에依한 海軍力에關한 國際均衡이 確立되엇든데 日本政府의 提案을 受諾하면 華府條約에 依하야 確立된海軍力均衡은 根底로부터 顚覆되는 結果가 될것이다

【倫敦十二日發聯合】伊太利代表랑피니提督은 委員會席上에서 正面으로 最大限方式에 反對를表明하고 特히 最大限方式은 幾多의 矛盾이 存在하다고 逐一指摘하엿다고 觀測되다

【倫敦十二日發聯合】佛國代表랑비르提督은 十二日午前의 委員會에서 共通最大限案에 對하야 反對를 表明하엿는데 新方式그것에는 反對하지안코 主로 「手續上」見地에서 如前히 述하엿다고 보인다

永野全權의 說明에 依하면 共通最大限方式은 佛國海軍에 適用되지안는다고 한다 華府會議에서 佛國政府는 極端的인 劣勢比率을 바다 事實上 海軍國欄內로부터 除外되엇는데 日本政府의 共通最大限을 受諾하는 結果는 또 不利한 結果가 될것이다 佛國政府로서는 手續上理由로 日本政府의 提案에 同意할수 업다 最大限을 受諾할 境遇에는 佛國政府는 끗까지 日英米三國政府와 同樣의 完全한權利를 主張한다

【倫敦十二日發聯合】加奈陀代表 비센트맛시氏는 委員會席上에서 英本國代表에게 追隨하야 共通最大限案에 反對를 表明하엿는데 자못 熱烈한 態度를 示하고 會議散會後도 永井全權에게 「日本政府의 新提案은 新案의 基礎가 될수잇는것이라면 愼重히 硏究해보겟다」는 態度를 表하엿다

共通最大限에 對한 各國代表의 質疑點

【倫敦十二日發聯合】第一委員會開會以來 前後三日 永野全權은 共通最大限方式說明에 熱辯을 繼續하야 佛國全權團에 本會議의 前途에 關하야 相當히 悲觀的意見을 表明하게되엇다

米伊兩國全權團도 海軍縮少 本會議의 前途에 關하야 相當히 悲觀的 意見을 表明하게되엇다 各國代表가 共通最大限方式에 關하야 特히 闡明을 要望하고잇는 諸點을 擧하면 如左하다

一、共通最大限을 設定할境遇에 日本政府는 有償權利를 行使하야 最大限까지 海軍擴張을 斷行할 方針인가

一、日本政府는 大海軍國의 海軍保有量을 一律로 最大限에 設定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데 이러케서는 各國의 地理的作戰的事情을 考慮에 너흘수가 업다 最大限方式과 此等各國의 特殊事情을 如何히 調和할것인가

一、最大限 達成의 過程과 期間如何

日本全權團에서는 私的會議으로 各國代表를 說得할 旣定方針에 基하야 上述한 質問에 對하야 全然方針을 述하지아니하엿스나 各國代表部는 大體 如左한 觀測을 내리고잇다

一、最大限을 設定할 境遇에는 日本政府도「天井」까지 建艦할 權利를 行使할것

一、日英米三國間에 地理上作戰上의 相違가 잇다는것은 거의 不足與議이다 따라서 日英米三國政府에 對해서는 共通最大限方式을 設定하나 歐洲大陸諸國에 關해서는 別個로 取扱할것

一、日本政府는 可及的 短期間에 共通最大限의 海軍力을 充實히 할것을 期待하고잇다 日本政府의 意圖가 만일 그러타면 量的制限案이 成立되지안흘것은 勿論 質的制限案의 成立도 困難을 不免할터로 海軍縮少本會議는 決裂할밧게업다는 見解가 有力하다

日本提案에 對한 米國側의 三論據

【倫敦十二日電通特派員發】十二日의 第一委員會第三次會議에서 米國代表데비스氏는 永野全權의 海軍力均等要求에 對하야 如左한 三論據에서 日本案을 到底히 受諾할수업다는 所以를 反覆强調하엿다

一、共通最高限 設定의、本案을 受諾하면 그結果 各國의 建艦은 도로혀 增加를 招來할것이다

二、日本案은 各國의 軍事的必要를 根據로한 平衡狀態를 만들어낸 華府 倫敦兩條約의 協定을 根本으로부터 顚覆하게될것이다 日本側은 均等要求提出의 根據로 前記二條約調印後에 起한國際情勢의 變化를 云하엿스나 世界의 平衡狀態에 修正을 加하고 또 이것을 許容할만한 激甚한 變化가 國際情勢에 일어낫다고는 생각되지안는다

三、日本案은 各國이 軍事的必要의 內容을 달리한다는 事實을 考慮에 넛는것을 忘却한것이다

問題의 共通最大限量

英米를 爲始하야 佛伊等도 積極反對

加奈陀、濠洲、南阿代表도 不贊

軍縮會議停頓難免

【倫敦十二日電通特派員發】十二日의 委員會에서는 米國代表데비스氏를 爲始하야 英國代表몬셀氏、佛國代表피니、南阿代表케·워러、濠洲代表부루스及 加奈陀代表맛시各氏가 各各 發言하야 日本이 提議한 共通最大限設定案을 全部的으로 拒絶하는 意思表示를하엿다 特히 몬셀英國代表와 如한이는 開會와 散會에 當하야 鏤縷 細目에 亘하야 演說하고 强硬히 日本案에 反對하엿다

【倫敦十二日發聯合】米國代表노만·데비스氏는 十二日午前의 一般委員會에서 論據三點을 擧하야 最大限方式案에 反對하엿다고 確聞된다 米國代表의 論據는 如左하다

一、英米兩國政府와 가튼나라는 國情이 地理的 乃至 所謂 脆弱이 만흔關係上 一定의 海軍力을 要한다 따라서 日本政府의 主張함과가티 各國政府의 海軍保有量에 共通最大限을 設定하더라도 英米兩國政府는 最大限을 顯著히 低減할수 업서 結局은 他의 各國政府가 最大限까지 海軍을 擴張하는 結果를 誘致할것이다 最大限方式은 軍備縮少를 達成하는 所以가아니다

一、海軍力에 關한 各國政府의 『相對的所要』는 國情에 따라 各共相異하다 日本政府의 最大限方式은 此等各國政府의所要를 考慮에 너치안코 一率로 兵力量을 決定하는 點에 最大缺陷을 不免한다

反駁質問續出로 次回回答을約束

共通最大限問題로

【倫敦十二日發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第一委員會 第三次非公開會議는 午後零時五分(日本時間午後九時五分) 散會하엿다 十二日會議에서는 英米佛伊各國代表로부터 日本의 軍備保有量共通最高限度設定提案에 對한 反駁質問이 續出하엿기때문에 日本代表는 此等質問에 對해서는 十三日다시 回答할것을 約束하엿다 十三日의 會議는午前十時三十分부터 開會할터이다

大小國意見對立 和協案審議延期

十八國委員會十二日開會

十四日再開會決定

【쥬네브十二日發電通】對伊制裁十八個國委員會는 十二日午後四時三十分 開會하야 卽時 秘密會에 入하엿는데 席上에서 佛國代表라발首相은 英國代表이든 無任所相과 共同戰線을 펴서 英佛은 끗까지 聯盟規約을 忠實히 遵守할것을 强調하고 聯盟規約內에서 英佛間에 成立한 伊에和協試案을 可及的速히 審議檢討해주기바란다 라고 說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小國側은 英佛의和協試案에 依하야 全然新情勢가 生하엿다 이것을審議할權能을 가진것은 理事會뿐이다 그러므로 理事會가 英佛和協案의 內容에 關하야 充分한 檢討를 終了하기까지 十八個國委員會는 如何한 措置도 取하는것을 避할것이다 웨 그러고하면 本委員會가 어떠한措置를 講究할境遇에는 近近 開會하야 이것을 審議할理由가 잇다 라고英佛大國側에 對한 反駁意見을 開陳하야 小國側은 大國側을 壓하야 何等 決定을 보지못하고 一切을 次回會合에 延期하고 同五時散會햇는데 次回는 十四日에 會合할터이다 따라서 問題의 對伊石油禁輸實施案은 적어도 그때까지 延期되게되엇다

聯盟理事會 十八日開催

【쥬네브十二日發電通】英佛의伊에和協案은 小國側의 策動이 奏功하야 드듸어 理事會에서 審議하기로 되엇는데 聯盟當局은 右理事會를 來十八日에 開會하겟다는 旨를 公表하엿다 그리고 聯盟當局은 各理事國에 對하야 卽時 右英佛案을 配布하고 理事會開會까지 充分히 이것을 檢討시키기로 되엿다

米國代表部에서 佛國懷柔次活動

佛、依然反日態度表明

【倫敦十二日發電通】데비스米首席全權은 十二日의 軍縮會議第一委員會의 佛國代表部의 對日態度가 英米보다 顯著히 그 角度에 差異를 示한데 鑑하야 對佛直接折衝을 決意하야 十二日午後五時 스탠드레 提督과 필립스次官의 兩全權을 同伴하야 칼스톤호텔에 佛國代表部를 訪問하야 두랑·비엘、로벨兩全權과 懇談하엿다 誰聞하건대 右會談으로 佛國代表는 十三日午前 十時半부터 열리는 第一委員會에서 佛國의 立場을 釋明하고 決코 日本의 平等權要求를 承諾하는것이 아니라는旨를 宣言하야 對歐洲安全保障을 目標로 陸海空三軍相關主義를加味한 獨自의 主張을 構述하기로 決定하엿다

【倫敦十二日發電通】軍縮會議佛國代表部에서는 十二日午前의會議의 結果 軍縮第一委員會에서 日本共通最大限主張에 對한 佛國態度를 左의 主旨에 基하야 說明할것으로 傳한다

一、十一日의 委員會에서 佛國이 日本의 共通最大限案에 是非의斷定을 내리지안코 單히 同案이 日英米三國以外의國을 除外하려는데 反對함에 止한것은 決코 佛國이 日本의要求를受諾하려는것으로 解釋할것이아니다

一、佛國은 日本의 共通最大限案이 적어도 實行至難이라는데 見解를가티한다 따라서佛國代表가 如斯한 態度를 決定한것은 日本均勢에 反對하려는것이아니다 萬若共通最大限案을 認定하는 時는 곳伊太利에 結好의 口實을 줄憂慮가잇다

이와가티 佛國의 日本案不同意의方針은 依然鮮明을 加한模樣이다

(사진은 데비스米全權)

巴里試案으로 佛內閣難關逢着

에리오氏도 大不滿

【巴里十二日發聯合】라발首相은 호어外相과 會議한結果 伊太利에 에디오피아領土의 太半을 割讓하는 果敢한 讓步案을 決定한데 對하야 佛國政界에 俄然 反對烽火가 起하야 라발內閣은 再次 重大難關에 逢着할것으로 보인다 閣內에서는 急進社會黨出身閣僚는 聯盟의 原則을 無視하는 巴里試案에 贊成한 非難을 加하고 副總理格인 에리오無任所相도 라발首相의 處置에 不滿을 表明하엿다고한다

王克敏氏委員辭任

【上海十二日發電通】冀察政務委員會委員에 任命된 王克敏氏는 十二日夕刻에 至하야 突然 行政院長 蔣介石氏에게 對하야 政務委員 辭任電報를 發하엿다

獨立主權認定한 憲法復活勅令公布

【카이로十二日發聯合】埃及파드一世는 十二日네심·파샤와會見協議의 結果 一九二三年四月十九日制定의 憲法을 復活하기로決하고 卽時勅令에 署名公布하엿다 同憲法은 埃及國의 獨立主權을 認定한것이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溫陽에서 靜養中이던바 夫人令孃同伴十四日午後二時三十二分京城着列車로歸京

▲加藤朝銀總裁 十六日東京發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歸京

▲알마·코릿孃(피아니스트)十四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歸國人事次來社

▲桂貞植氏(提琴家) 코릿孃送次十四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橫濱向發

▲田元培氏(四海公論主幹)社務를 띄고 滿洲方面에 約一週間旅行次今十三日午後三時京城驛出發

▲崔常植氏(光州府會議員)十三日入京 三重旅館에投宿

▲尹 煥氏(光州府會議員)十三日入京 三重旅館에投宿

▲韓世光氏 十二日午前三時平壤府下水口里九三自宅에서逝去

▲後藤一郎氏(朝鮮每日新聞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崔國卿孃(淑明女高敎員)林誠鎬氏와의結婚式을 十六日午後四時府民館에서擧行

八面針

◇群小自動車線路를 鐵道局、私鐵會社、電氣會社等이 買收合倂等으로 統制할計劃。

◇朝鮮人側營業으로 獨占性을 若干가진 酒類 麵子도 統制形式으로 大資本이 吸收。

◇이趨勢로 나아가다가는 小資本 小經營은 하여먹을 일이 무엇인가。

◇商工省이 中小商工業을 保護하는意味로 商工中央金庫까지 만들라는 이때에

◇總督府殖産局은 中小營業者를 爲하야 特別한 方策을 講究할 必要가 업슬가。

◇戶籍係窓口에 印鑑證明申請이 山積、歲暮債務整理를 爲한 가이업는 風景의 하나。

◇이 機會에 特히 말할것은 陽曆에 조르거든 陰曆에는 조르지말나는 債權者에게 付托。

海軍軍縮會議와 그前途

九國條約締結로 極東政策再確立 (廿五)

雲崗生

何如間、米國은 中國에特히 援助地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을 石井、란싱協約으로 承認해 노코서 뒤에 이것을 크게 後悔햇다。後悔한 表의 하나로 볼것은 石井란싱協約을 締結한 翌年인 一九一八年八月十一日、米國上院外交委員會에서의 一議員의 質問에 對하야 란싱國務長官이

「本協約에서 말하는 中國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이라는데는 政治的意味는업다。」

고 答한것을 보아도 알것이다。

그러나 大戰中에 잇서서는 極東에 對하야 容喙할 實力的餘裕가 업는故로 後悔는 하면서도 그럭저럭 지내오다가 大戰이 끗나가지고、米國自身도精神을 차리고、또 歐洲列强도戰爭의 疲困이 若干、除去된 一九二一年의 華盛頓會議에 이르러가지고、米國은 드듸여 中國에잇서서의 日本의特殊利益을 承認한 屈辱的協約인 石井、란싱協約을 破棄해 버릴 決心을햇던것이다。

이 決心下에 米國의 策動으로 成立된것이 卽、여기 말하려는 九國條約이다。

米國이 主動이 되여、歐洲에 位置한 英國、佛蘭西、伊太利、白耳義、和蘭、葡萄牙의 六國과 協力하야 여기다가 日本을 끄러너어가지고、中國의領土保全과 機會均等을 서로 確認하는意味를 規定한것이 卽、所謂 九國條約이라는것이다。故로 米國은 石井、란싱協約으로 中國에 잇서서의 日本의 特殊利益을 承認해던것을 九國條約으로 이것을 다시 取消한것이다。이것을 裏面으로 말하면 米國은 石井란싱協約에 依해서 그 傳來의 極東 門戶開放、機會均等主義를 一旦、拋棄하엿다가、九國 條約에依하야 이主義를 다시 蘇生시킨것이다。그러면 이른바 九國條約이라는것은 어떠한 內容을가진것이냐?하면 이것을 簡單히 말하면中國의 主權尊重、領土保全、門戶開放、機會均等을 日英米佛伊白和葡中의 九個國間에 相約한것이다。此를 다시한번 詳細히말해 보면 九國條約의 第一條는 本條約의 精神을 가장 明瞭히 表現한者이니 이것을 條文대로 紹介해보면 如左하다。

「中國以外의 締約國은 左와가치 約定함

(一) 中國의 主權、獨立並그 領土的及行政的保全을 尊重할것

(二) 中國이 스사로 有力且安固한 政府를確立維持하기爲하야 가장 安全하고、또 가장 障礙업는 機會를 此에 供與할것。

(三) 中國의 領土를 通하야 一切의 國民의 商業及工業에 對한 機會均等主義를 有効하게 樹立維持하기爲하야 各各盡力할것。

(四) 友好國의 臣民又는 人民의 權利를 減殺할 特別한 權利 又는 特權을 求하기爲하야 中國에서의 情勢를 利用하는것을 及友好國의 安寧에 害잇는 行動을 自進해서 하지 아니할것。」

右揭가 九國條約第一條인데、이것을 보면 알바와가티 右規定은 此를 要컨대、(一)從來、列國間에 承認되여 잇는 原則을 確認하는 同時에 行政的保全이라는 新語를 加하야 틈업슬만한 精密의 度로서 列國特히 日本의 中國에 對한 欲望을 抑壓코저하는것이 그要點의 하나、또(二)中國의 混亂한 狀態에 鑑하야 且、當時의 北京政府及 廣東政府의 分立을 非라고하고、中國의 民意에 適合한 堅實한 政府의 成立을 希望한다하야 此의 成立에 必要한 好意的援助를 한다는것이 要點의 하나、또(三)中國에 잇서서의各國民의 商工業上의 機會均等主義를 維持코저하는데 잇서서 從來의 原則과 다름이 업스나 中國의 如何한部分에對해서도此를適用코저하는點에 잇서서 米國의 用意가 자못周到함을 보이고 잇다는것이 要點의하나、또(四)는 外國人中、往往히 中國에 잇서서 內亂을釀成하야 此를自己又는自國의 利益을 爲하야 利用코저하는 事實이 잇슴에 鑑하야 此를警戒하고、또各國人의單獨行動을 排除코저한는것이 第四要點이다。

右를 보면 九國條約은 列國特히 米國이 日本의 中國에 잇서서의 行動을 阻止하기爲하야 만든 條約임을 알수가 잇다。

그러고、從來의 極東門戶開放主義、機會均等主義를 單純한 主義의 宣言에 그치지안코 이것을 國際條約化한것이 卽、이九國條約인것도 알수가 잇다。

同時에 九國條約을 事實上으로 効力잇게 한다는 것은 此를 裏面으로 말하면 米國以外의 列國、그中에서도 特히 日本을 抑制하야 中國에서 아모런 行動도 取치 못하게하는것이 된다는 뜻도 알수가 잇다。

또한 同時에 列國의 中國에서의 行動을 制止하기 爲해서는 米國은 그渡洋作戰主義의 海軍을 心要로 한는것도 알수가 잇다。

滿洲事變、上海事變을 바라본 米國이 此를 九國條約의 違反이라고 하는 同時에 日本과 一戰을 決할 생각을 가지다가 『勝算無』를 念慮하야 그만두고 마른 理致와、그以後에 잇서서의 急速度的海軍擴張의 事實도 이러케 보아오면、그理由를 알수가 잇다。(未完)

四千餘名學生 自治反對大示威

中山大學을中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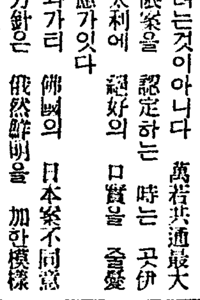
【廣東十二日發聯合】中山大學學生 同附屬中學生을 中心으로한 廣東市內의 各學校學生團 約四千名은 十二日午後一時 突然華北自治運動反對의 一大示威運動을 起하엿다 學生團은 五、六百名의 女學生을 交하야 『抗日大示威運動』이라고 記한 大旗를 先頭에 세우고 손에는 小旗를 흔들면서 蜿蜒長蛇와가티 廣東市內를 遊行한 學生團은 租界에沿한 大道에 나서자 指揮者의 指令으로 各其一齊히 『華北自治反對』『打倒帝國主義』『武力抗日』等의 슬로간을 絶叫하면서 또 遊行을 繼續하야 到處에서 交通을 遮斷하면서 中山公園에 達하엿다 그러자 指揮者의 指令으로 激烈한 打倒日本帝國主義를 絶叫하고 午後六時에 至하야 散會하엿다

産地唯一の陶器通信販賣
日本一安い日鮮陶器卸問屋
朝鮮用陶器各品豊富特價大廉賣
鮮內地用陶器卸問屋 便器 サバルラスタ丼大小皿蓋物 類蓋付 サバル 等一切具備
小資本開業日鮮陶器店開業指導
綢緞布木食料雜貨米穀商의 新副業
日鮮陶器의仕入은直接産地로
朝鮮用內地用均一及一般向 四百種類記載 寫眞入陶器卸商報進呈
岐阜縣多治見町 內外陶器一切卸問屋
和洋陶器百貨植木鉢擂鉢類年末廉賣
田中一郎商店 電話七〇番 名古屋四一九二番

昌信旅館 京城貫鐵洞一二六 電光二四六二番

朝報案內

筆生 生動人婦女子最適하고無休永續함 實質한분에依賴함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盛文社


金儲 カタログ呈 穀物膨脹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橋機械製造所

하나님의 구원하는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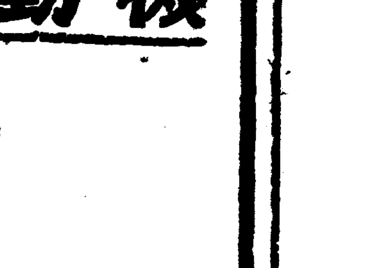
사람의 도덕이 부패하야 불의가 가득한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정당하게 하여주실길을 마련하섯으니 곳『예수』로 하여곰 무죄한 생활을 하게하사 모든 인간의 모본이 되게하신것이다 이로써 사람이란 과연 어떠하여야할것을 알수 잇는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죄의 저주를 바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본과 가치될 가능성이 전연 업으니 오히려 완전한 인격을 볼수록 자신의 불의와 결점이더 나타날 뿐이다 그런고로 죄악된 사람으로서도 능히 의인이 될수 잇게하는 방법을 세우섯으니 이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야 속죄의 죽엄을 하신 『예수』의 공로를 밋고 그 흘니신 피로 죄를 씻어깨끗게하는 언약에 의하야 갓어서 의롭다함을 엇게하신것이다 그런고로 『구속』함을 어든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것이 아니오 오직 보배 피로 한것이 다라하엿고 『주 예수』를 미드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어드리라」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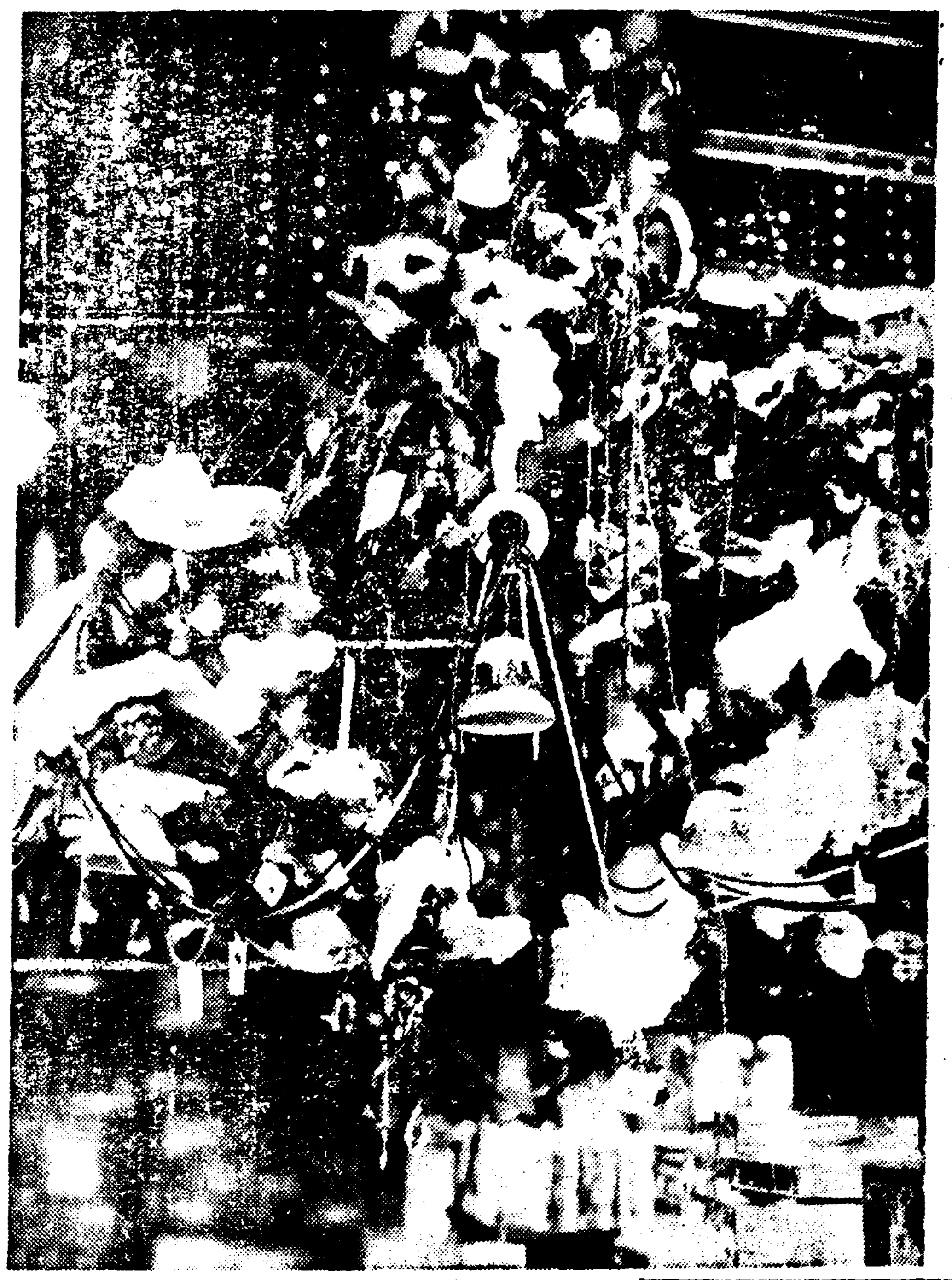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蛔虫에는 맛잇고 잘듯는 산독이 날과자
珊篤尼涅菓子
蛔虫이寄生하야배가압흐고 얼굴이누르고 몸이여위는 애들에는
산독이 날과자 珊篤尼涅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シ菓子

大正館 十三日부터十六日迄 大正館閉館特別大公開
大都映畫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阿部九州男 月宮乙女主演 風流千石やくざ
フォックス映畫特作全發聲日本版 レックス・イングラム 監督主演 モロッコノ血煙リ ピエレ・バッチエフ・ロジッタ・ガルシア 助演
大都映畫特作現代劇 吉村操監督作品 想夫憐 琴絲路·勝間休太郎主演
櫻井町 電本 八五

クボタの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文獻送呈)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店頭에 "크리쓰마쓰 추리"……◇

朝鮮人의 通信力

發着總數의 三分一

郵便、電信 發着件數와 電話의 加入數

□□ 比較가 못되는 이 數字!

지난 소화구년중의 전조선우편물의 왕래상황을 보면 조선안에서 배달(配達)한것은 총수가 삼억이천오백사십오만팔천오백 백오십팔건(件)이고인수(引受)한총수는 이억구천륙백륙십삼만륙천천륙백십팔건인바 그중에 조선사람의것은 겨우 일억삼백십오만오천팔백구건밧게 아니되야 총수의 삼분지일을 넘지못한바 이것을 다섯해전인 소화오년의 인수건수에 비하면 일반적으로는 오천륙백삼십팔만오천팔백륙십이건이 격증하야 거의 갑절의증가를보엿는데 조선인의것은 일천칠백 오십삼만 사천륙백륙십삼건이 늘어서 일할 오륙분의 증가 밧게는 보이지못하얏다 다시 전보발착(電報發着) 수를보면 소화구년중의 발신총수는 칠백십사만팔천 사백이십삼통인데 그중에 조선인의것은 일백팔십이만칠천 팔백사십통이여서 총수의 삼분지일정도에지나지 못하며 착신총수는 칠백칠만구천구십이통인데 그중조선인의 것은일백팔십삼만 칠천사백륙십이통이어서 이역 삼분지일에불과하다 이것을또다섯해전인 소화오년의 것에비하여보면발신총수는 사백륙십이만오천이백 십팔통이 증가하야 약구할가량의 증가를보엿는데 조선인의것은일백칠만이천오백십이통이어서 약칠할오분의 증가박게는 못되엿스며 착신에잇서서는 총수오백륙십삼만 사천삼백 삼십오통으로 약삼할가량의 증가를 보엿는데 조선인의것은 구십팔만오천 이백륙십이통이어서 이것은거의 갑절에 갓가운 격증을 보엿다 다시 각지전화(電話)가입자의 총수를보면 작 소화구년중에는 삼만칠천륙백구십사인인데 그중에 조선인은 팔천이십륙인 박게아니되야 약사분지일 남즛시 박게업서 일반적으로조선인통신력의 미미함을 집작할수잇게되야잇다

太平洋勞組指令으로

市內서 "赤勞"組織

鍾路署가檢擧한男女十餘名

不日內로送局豫定

시내종로서(鍾路署)고등계에서약두달전부터 강영근(姜永根)리춘식(李春植)(女子)등 청년남녀십여명을 검거취조중이라 함은긔보와갓거니와 그동안 취조가일단락을지어 수일간에 검사국으로 송치하기에이르럿다는데 송국될사람은 강영근등 여덜명이라하며 그사건내용인즉 전긔강영근이가 로령해삼위 본부를둔 태평양 로동조합(太平洋勞働組合)의지령을 바더가지고 경성내외를 중심으로 각공장과 가두에 적색로동조합(赤色勞組)을 조직하여가든것이라고한다

府民肉食追月增加

지난 십일월중의 경성부영도수장(屠獸場)의 도살상황은 가축도살총계가 삼천구백팔십두(頭)에 그가격이 이십오만팔천십삼원사십전으로 그중 소(牛)는이천삼백십팔두에 그가격이 이십만오천팔백사십삼원륙십전이오 도야지(豚)는 일천륙백사십팔두에 그가격이 삼만일천팔백오십 삼원팔십전이고 말(馬)은 열두마리에 삼백원이며 양(羊)은두마리에 십륙원인데 전년동긔에 비하야 소는 일백팔십팔두가증가하고 도야지는 삼백오십일두가 증가하얏는데 이는 경긔가 조와진까닭에 부민의 일사치가 늘은까닭이라한다

煙突掃除夫로

火災監視兼行

消防署에豫防講習會

금번 경성소방서에서는 시내에 잇서서 화재예방의 철저를 도모코저 시내각처로 허터저 도라다니는 연돌소제부 삼십여명을 모하가지고 화재예방강습을 식힐터인데 종래도 시내에서이러나는 화재의 그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부주의에서이러난 화재요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든가 고의(故意)의 화재가 아닌것이 판명됨과 동시에 요지음은 일기가 본격적으로치워저 불사용이 평시보다 빈번해지는 반면 일반은 섯달대목이 닥처 각양업무에 골몰하고보니 헤가에 화재를 감시할틈이 업서 주의를 해이해하는 경향이 만흠으로 이에 소방서에서는 연돌소제부의 화재예방강습을식혀 불완전한 시설을 발견하는데로 이를 경고하도록하고 또 위험한 개소를 발견할때는 경찰에까지라도 통지를 하도록하야 화재예방에 한 도움이되도록할터이라고 한다

三十秒、一分間에

電波로鑛石鎔解

鎔鑛爐無用時代가왓다!

鑛業界에一大革命

광업조선으로서는 드물만한쾌소식!!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수천도고열이 아니면 녹일수도업는 광석(鑛石)을 용광로(溶鑛爐)도 쓰지아니하고 단시간에 호물호물 액화(液化)를 식힐수잇다는대 발명으로 이발명의주인공은 작년까지 려순(旅順)공과대학을 졸업한후 만철중앙시험소에 근무중이든 장야현(長野縣)출신 국지수지(菊池秀之)라는 청년 학자로 일즉부터 전파정련법(電波精鍊法)을 연구하야 동료와 선배들로 부터는 허황한 소리라고 비웃슴까지 밧고오든중에 동경와서특수제련연구소를 설치하고 일야전공한결과 광석을 어떤종류의 연료(燃料)와섞거서 여게전파(電波)를 통할때는 삼십초내지 일분동안에 광석이 용해되여 버리는 마술가튼 실험에 성공하엿다고한다 이미 이무명청년의 발명을 일만오천원의 수속비를드려 구미십오개국에 특허출원의 수속을 취하엿다고한다

十一月中公質業績

지난십일월중의 경성부영공설질옥(公設質屋)두곳의 대출상황을보면 대출(貸出)에 잇서서는 이천사백칠십이인에 금액이 일만일천팔백구십사원으로 전년동긔보다 인원에잇서서는 일곱명이감소되얏고 금액에 잇서서는 팔백이십오원칠십전이 늘엇다 그러고 회수(回收)에잇서서는 삼천일백오십일인에 그금액이 일만이천이백오십사원 사십전으로 전년동긔보다 인원에 잇서서는 륙십륙인이 감소되얏스나 금액에 잇서서는 일천사백 오십전의 증가를보엿는데 이는 경긔가 나아진까닭에 인원은줄고 금액은 늘은것이라한다

鴨綠江開發의

朝滿水路協定會

發電計畫도樹立할터

압록강(鴨綠江)의 수로개발(水路開發)에 관한 근본방침을 결정할 조선과 만주의 량당국간의 협의회의는 지난십일일부터 만주국측으로부터 정호천(井戶川) 교통부 리사관도긔(島崎)안동항정국장(安東航政局長)조선측으로는제지(鵜池)해군 어용괘(御用掛) 고송(高松) 체신국해군과장이하각관계관이 출석하야 십삼일오전중에 총독부측만이 협의를마치고오후부터다시 조선 만주량방의 협의를 하기로 햇는데 압록강을 교통산업상으로 크게 리용하는 동시에 이에따르는모든 시설과 취체등에 관한협의를마치는데 이방침에 따라서 금후는 현지에서 측량 조사와개수등을 적당히 해결시키고 이를 종합 통괄하는 의견이 일치되엿다 또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엿스며 항행(航行)관리권등의 세목에대하야는 계속하야 연구할것으로 요건대 압록강의 수로를 리용하야 부근일대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식히랴는 것으로서 압록강의 발전(發電)계획과함께 자못 기대가 깁흔것이라고한다

裡里에初雪

【裡里支局特電】리리지방은십일일오전령시부터 졸한이 떠지고 초설이내렷는데 눈은작년보다 한달늣다고하며 치위는 근래못본 혹한이라고한다

間島共產黨事件公判

十九名審理終了

남은七名은十八日까지結審

自己辯論終了後求刑

간도공산당사건의 공소공판은이달삼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공판을 개정한이래 사일오일구일십삼일넷새동안에 주현갑(周現甲)등 열아홉명에 대한 심리를 끗내엇다 오는십륙일에는 박금철(朴金喆) 민창식(閔昌植) 지련호(池連浩) 김응수(金應洙) 김봉률(金鳳律) 고하경(高河鯨) 조동률(趙東律)등 일곱명의 남아지피고들에 대한심리를 마즈막으로 끗낼예정이라한다 십팔일에 만약이일곱명의 심리를 끗내지 못하게되면 십팔일까지에는 전부 끗내게되리라한다 그리고 피고각자에게 대하야 자긔변론을 허락한뒤에는 그것이 끗난뒤에는 검사의 구형이 잇슬터이다 변호인들의 변론은 약삼일가량걸리게 되리라한다

店員이服毒

십삼일 오전령시반경에 시내종로(鐘路)이정목 륙십칠번지 고려미술조화소(高麗美術造花所) 점원 한중수(韓重洙)(二○)가 칼모친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소매에는눈물자욱

曲折깁흔棄兒

十二日밤初音町에서

가난이나은 개구녕바지—지난열이튿날 밤아홉시 오십오분 시내초음정(初音町)일백십이번지 유선준(兪璇濬)씨집 대문압헤 나흔지 한일헤가 채못된 갓난계집애를 누덕이조각과 솜에싸고싸서 내버린것을 그집 행낭어멈이 발견하고 곳이사실을 소관본정서(本町署)에 알렷는데 어린애 옷자락에는『섯달초일헤날생』이라는 조히쪼각이 달려잇섯다한다 어린애의 옷차림으로 보아서이는 가난한 사람이 길를수업서 내버린것으로 짐작되는한편 옷소매에 축축한 물시기가 군데군데 떠러저잇는것을보면 내버릴때에 애어버이가 떠나기섭섭한남어지 애끗는눈물을 흘린것으로보인다한다 그리고 어린애는마츰 유씨가 자손이업는탓으로 불상이여겨 거두어기르기로되엿다한다

早熟한盟休

公普校生이同盟休學

평안북도 벽동군 벽단공립보통학교(碧潼郡碧團公普)륙학년남자생도륙십삼명은 지난칠일 담임선생겸전(鎌田)훈도가 학긔시험을행하는데 불만을가지고 결속하여 팔일부터 동맹휴학을 단행하엿는데 학교측과 학부형측은 이에놀래여 여러가지로 로무한결과 십이일부터 겨우복교를하게되엿는바 당국에서는 혹시생도들의 배후에 그들을 움지기게한자가 업나하야 조사진여보앗스나 단순히 생도들만이 판명한것으로되엿다

伊川의電燈架設

來四月부터點燈

【伊川】강원도이천군읍내의 전등가설문제는 실로다년간 현안중에잇서서 각방면으로 최선의활동을 다한결과 금번개성전긔회사에서 이천읍내에 전등을 가설키로되야 금번전주 세울곳의실지측량을마치고 공사에착수하야 오는사월부터는 점화될터이라는바 암흑하던 이천읍내시가에도 불원간 불야성을 일우리라고한다

運動競技

◇寫眞說明=奉天國際링크에서猛練習中의世界올림픽冰上代表들

拳鬪豫選압두고 아마拳聯

諸般準備에着手

全朝鮮아마튜어 拳鬪聯盟主催와 本社後援下에 열리는 世界올림픽拳鬪豫選大會는 來一月부터 三日間 本社大講堂에서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를 압두고 諸般準備에着手코저 明十四日 午後二時半부터 常務理事會를열고 뒤니어 同午後四時부터 理事會를열어 諸事項을 協議할터이라한다

全日本制覇코저 "펭귄部員"들

赤城山서猛練習

【赤城山頂서安重熙(特信)】前略…國際舞臺에 우리의 자랑金、李張三巨將을 보내고 그들의快報를기다리며 이곳에남은 우리機留部員들은先輩의 뒤를밟어서또한 責任을 다하야 連年日本스피-드·스케-팅界를 征服한 그榮譽를 死守하려는 決心을갓고잇습니다 우리一行(崔龍振、張日弘、朱鳳德、尹世植、許景日諸君)은 지난十二月七日부터 群馬縣勢多郡赤城山頂의 銀盤을 차저와서 連日朝夕二回式 練習을行하고잇습니다 이달下旬에는 우리의 本隊를日光에向하야各種大會에서奮鬪하려고합니다(後略)

朝鮮四選手決勝에

職業拳鬪選手權

全日本職業拳鬪聯盟主催의 第二回全日本拳鬪選手權 大會의挑戰者資格決定戰에서 朝鮮選手金正涉 玄海男 金恩燮 洪某(姓名未詳)四君은 저모의強敵을물리치고 모다決勝戰에 드러갓는데 다음의 對陣과가티 來十六日에 東京日比谷公會堂에서 雌雄을決하기로되엿다

【빤탐級】玄海男(帝拳)……鷗(帝拳)
【페더一級】洪某(올림픽)……細井(城南)
【라이트級】金恩燮(帝拳)……山岡(躍進)
【웰터一級】金正涉(日拳)……佐藤(東邦)

全日本氷上各種大會

今年 氷上씨-슨에 잇서 日本스케-트競技界는 年末로부터 明年二月에 이르기까지 東京、日光링크에서 모든大會를 열터인바 其日程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全日本中等大會=十二月二十七、八、九의三日間(日光) 朝鮮에서는 新義州高普와 三務校가 出場豫定 ◇高專大會=十二月二十九、三十、三十一日의三日間(日光) ◇全日本學生스피-드大會=一月二、三兩日間(日光) 同아이스·하키-及피규어-一月六日부터 五日間(東京芝浦) 스피-드部에잇서 펭귄俱樂部 殘留軍이 各各在籍校멤버로出戰할터 ◇全日本스피-드選手權大會=一月二十四、五兩日間(日光) 이大會에도 펭귄殘留軍이出戰할터이다 同피규어及아이스하키-部는一月二十四、五、六의三日間(芝浦) ◇神宮競技스피-드大會=二月一、二兩日間(日光) 同上피규어及氷上하키-二月一、二兩日間(東京芝浦)

日本스케-트會除名

【東京電話電通】日本스케-트競技聯盟에서는最近 理事會를 열고日本스케-트會를 除名키로 決定하엿는데 이것으로 因하야 日本스케-트會所屬選手는 今後公式競技會에出張權을 剝奪케될 憂慮가잇서 今後의動向이注目되여잇다한다

運動界集會

▲朝鮮體育會 常務會는 十八日午後四時半 同會館

保險金은누가준고

火災保險會社火災

불이업서야될 화재보험회사에 불!—지난 십이일밤 아홉시쯤되여 시내태평통(太平通)일정목조선화재 해상보험회사(朝鮮火災海上保險會社) 안에잇는 배전반(配電盤)에서 전기가새여나오며 불이부터서 배전반을모다 태워바린후 가튼시간 십분가량되여 불을잡엇는데 손해는 아즉알수업고 한때는 소방대의출동으로 혼잡을 이르엇섯다한다

喪家에火災

초상집에 화재—십삼일 오전한시사십분에 시내홍파동(紅把洞)일백삼십번지 엄일섭(嚴一燮)(三)의 집에서는 시체겨테 둘너둔 병풍에 불이부터서 영창네개와 이불한벌을 태워버리고 십분만에 불을 잡앗다 초상이나서 종야를 하게되엿는데 켜두엇든 초人불이너머저서 불이나게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北中國의 高氣壓은 조금南下하야 그勢는 次次 衰하고잇다 日本과의 氣壓의 差는크게 減少하엿다 滿洲、朝鮮은 日氣가 조코 北西季節風은 弱해저서 氣溫은 昨朝보다 二度內外노파젓다 表日本은 大槪 晴、裏日本의 風雪도 멈칠려고 한다。

豫報 京城地方及 京畿道全區는 今夜、明日함께 大體晴이나 一時曇으로치위는풀린다

昨日最高	零下	六、六
同 最低	同	一四、九
今日正午	同	七、一

리네오지린 림질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鳴尾、兵庫縣西宮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高血压·腦病 神經痛·喘息 病根이되는濁한 血液을淨化하면完治 中風
今津佛理博士發見·淨化劑의好成績
見비동이나고、頭重、耳鳴、眩氣、動悸、喘息、便秘、不眠症、神經衰弱、浮症、高血壓、痙攣、動脈硬化、허긋고、半身不隨 …… 血液을淨化하지안으면 …
今津研究所에依賴하여서빨이全快되도록하시라
恢復의歡喜 …… 大阪市 吉原篤吉

内科チストマ도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電話光三一三振替京城五七貳貳番

陸地測量部發行 目錄送要二錢
五万分一地図販賣元
京城公平洞六二(和信橫側) 東亞商會

青年 神經衰弱에깁흔原因이잇다 發育不全 機能障害
于先그健康發育을…… 生○器
ホリック眞空水治器 日、獨、佛、眞賣特許 名譽金牌受領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奨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包莖 ◇ホリック包莖安全器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合資會社 京東 新療法研究所 電話芝三三一 振替東京七七三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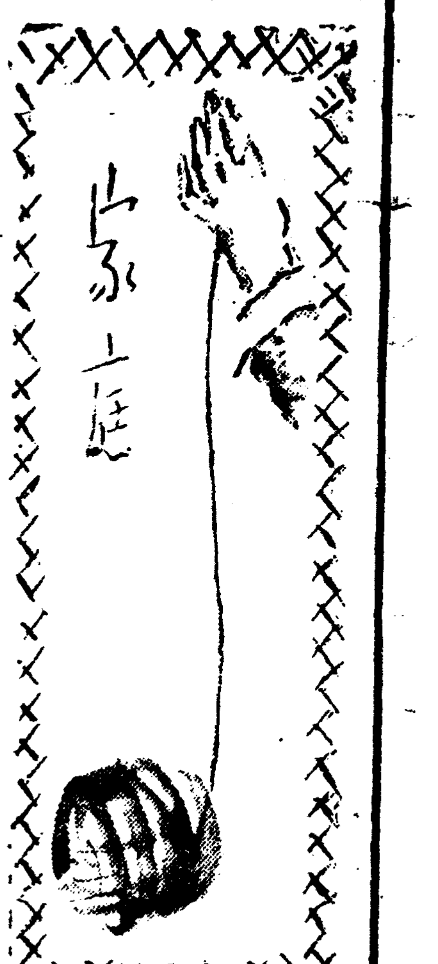
愛川謝恩歲末二重大景品附大賣出(公籤全無)總數二千個限賣出開始!!
◎賣出規定 ●賣出品…各社發賣크-롬18HK側、懷中時計 ●賣出期間…昭和十年十一月十五日부터昭和十一年一月十五日까지 ●抽籤日…一月二十八日 ●當籤發表…二月八日發行의各新聞紙上 ●景品送呈…二月二十日부터三月三十一日까지
◎景品內譯 大三千個景品
セイコーシャ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一ノ六一七

クローム懷中 / 十八金18HK高級腕時計 / 十八金18HK懷中時計 (price list)

腫氣 靑山膏에옴 히벅고

東洋劇場 竹添町一丁目 電話光三二番
十二月十三日부터特別大公開! 警官車十七號 地獄に結ぶ戀 銀平くずれ格子 朝鮮發聲映畫 아리랑고개 大豫告

優美館 黃金町 電話光九五二
十二月十日부터大公開! 힘과榮光 旅鴉お妻やくざ 曉の淡深船



소·도야지고기보다 요새별미는 꿩고기
잡을때잘못하면 냄새가밴다
료리로는 천리찬과섭산적

본래 고기의 맛은 네발가지보담도 두발가지에 잇다고 하는데 새중에서는 다시 이거나 저거나 하여야 꿩의 고기보담 더 맛난것은 업슬 것이외다. 만일 쇠고기를 육종중의 왕이라고 본다면 꿩의 고기는 육종중의 녀왕이라고 말할까요? 닭의 고기도 엉간이 맛나고 칠면조의 고기도 엉간이 맛나다고 하지오만은 꿩의고기와 비교해서 닭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어니와 칠면조라고 투철히 더 나흘것은 조금도 업슬듯 합니다. 만일 둘이 가치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도록 맛난음식이 사실이 잇다고 한다면 꿩의 고기를 빼노코 무슨 다른 음식이 잇슬수 잇슬까요? 말보담으로 꿩의 고기로 한번 요리를 맨들어자십시다.

꿩은 보호조(保護鳥)라고 해서 양력 동지ㅅ달로부터 정월까지밧게 잡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꿩이 반찬ㅅ가가에 매달리어 잇는 것도 요지음 한철뿐이요 그 맛단

꿩의고기로요리

를 맨들어 먹는 것도 요지음 한 철뿐입니다. 물론 모든 고기가 어느철보담도 겨울에 더 맛단 것이라 꿩의 고기도 역시 겨울이 제철이라고 봄수는 업지 안습니다 그러나 꿩의 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려서 겨울을 한철이 지난 뒤에는 먹기가 어려운만큼 겨울을 노치어서는 안됩니다.

×

그러나 모든 산새고기가 다 그런 것가치 꿩의 고기에서도 좀

구린듯한냄새가

납니다. 더구나 잡아가지고 곳 창자를 꺼내 버리지 안해서는 그 구린내가 고기에 배어서 아조 맛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될수만 잇다면 잡아서 곳 요리를 맨들지 말고 한 사오일 그대로 노하두엇다가 맨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기도 퍽씩 연할뿐이 아니라 냄새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타고 물론 그 고기를 상하게 맨들어서는 못씁니다. 사오일동안이라도 상하지 안토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

꿩의 고기로 맨드는 요리라면 첫재로

천리찬을들어야

하겟습니다. 천리찬이란 꿩의 살을 아조곱게 다져서 복가가지고 정월초하로날 떡국위에 언저 먹는 것이랍니다.

하필에 정초겟습니까? 어느때라도 떡국에 천리찬을 처서 나쁘리 잇습니까? 둘재로는 꿩고기의 섭산적입니다. 꿩의 고기는 물론이요 연한 뼈까지 한데 짓다지어서 아조곱게 맨들어 가지고는 섭산적을 맨들어서 구어 먹습니다. 셋재로는 꿩고기의 구이입니다. 꿩의 고기를

뼈를발러도조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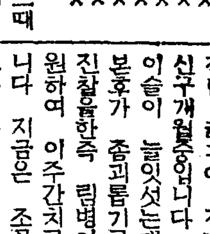
다소 적은것만 부처도 조코 구이로 구어서 먹습니다.

×

그이외에도 꿩의 고기로 업만든지 요리를 맨들ㅅ수업지 안습니다. 닭고기대신으로 복가도 조코 쇠고기대신으로 조리어도 조코 어떠케 해먹어도 다 좃습니다. 그런데 꿩의 고기로부터 굵은 뼈를 발려 내지 안습니까? 그것이라고 그대로 내버려서야 아깝지 안습니까?

그뼈다귀를너코

맑은장에 국을 끄립니다. 그것이 꿩뼈다귀국이라는 것으로 그역시 맛이해롭지 안습니다.



家庭醫學 임신시에대하!

문 저는이십칠세의 녀자인대 작년 하긔에 결혼한바 지금입신구개월중입니다 결혼전부터 흰이슬이 늘잇섯는대 월전ㅅ소변보는가 좀괴롭기로 병원에가서 진찰한즉 림병이잇다하여 입원하여 이주간치료를밧고 왓습니다 지금은 조곰도 괴롭이업스나 룽비슷한 흰이슬이 조곰식 의복에뭇습니다 의사의말이 그와가튼것이 보일때에는 병원에와서 잇도록하라고 한는대 저는지방에잇는관게로 자조치료를 방을수업는대 가정에서 치료할 약명과매일 소독하여 씻는약품을 자세히 가라처주옵시고 산후치료를 분명히하교하여 주십을 바랍니다

답 임신때에는 보통 대하가 만히나오는것인대 림질이 올마쓰면 일층더심히 나오는것입니다 하로에 두번식 一%リゾール液으로 밋물을 하시고 또 아희나실때에 림균이 아희의눈속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자미가 업음으로 반다시 산파의손을빌리시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림질치료는 아희나신후에 병원에 다니시면서 철저히 근치시키십시요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鳳燮)

각긔(脚氣)

문 시내일독자이오며 금년이 십입에결혼한 녀자이온데 몃달전부터 다리가벗려 지근하고 무루파아메로부터 조곰붓고 당긔듯합니다 처방을 하교하야주시요 (市內讀者K生)

답 말슴하신증세가 볼충분하야 잘알수업습니다 다만은 흑 각긔가 안인가 의심됩니다 내과진찰을 밧어보시는것이 조켓습니다 원인을모르고 단지부긔내리는약을 아르켜 드릴수는업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가정염색법 (一)
염료의종류와그성질

京城高工校 韓辰範

옷에 물드리는것을 예사로생각한다면 그까짓것……」할수잇스나 일반사회의 기호에맛는 미관이잇고, 색이바래거나 변치안케염색하는데는화학지식과 숙련한기술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슴드리랴하는것은 가정에서 할수잇는 지극히 간단한염색법이올시다

첫재 우리네가정에서 사용하는물감은 직접염료,류화염료(硫化染料) 염기성염료(鹽基性染料)산성염료(酸性染料)등 네가지인데 각각그성질은다음과갓습니다

직접염료(直接染料)——이물감은 아모매염제(媒染劑)—물이 잘들게작용지안는다—라도 미명,베,비단,털등속의 어느것에라도 물이 잘드는 까닭에 직접염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류산소ㅡ다(硫酸曹達)이나 소곰(食鹽)이나 탄산소ㅡ다(炭酸曹達)나 또는 조류에따라 조제(助劑)로 사용하면더욱 물이잘들게됩니다

류화염료(硫化染料)는 역시직접염료에는 류황(硫黃)이 석겨잇기때문에 류화염료라고 합니다 원래염료 즉물감은 잘녹지안는것으로 특히 녹힌물에 조곰치라도 산미(酸味)가 잇슬때에는 결코 용해되지 안호나 그대신 「알카리」성이잇는물에는 잘용해가됩니다 그래서 이물감을녹이는데는 류화소ㅡ다(硫化曹達)라는 약을너어서 끄리면 잘녹으며 그빗갈은 선명치못하나 다른물감보다 비교적튼튼하고, 갑이 싸서 미명, 베등속에 만히사용됩니다.

염기염료——는 화학상염기(化學上鹽基)라는 것으로 되어잇서 이런명칭이 붓게된것인데 성질은 비단과털에 매염제업시도염착이 잘되나 미명, 베에는 잘 안되며 빗갈은 선명해서 조호나 다른염료보다 약해서 알카리성에맛나면 빗이낡기쉽습니다.

산성염료——는 산성(酸性)—즉 시큼한맛이나는—색소로된 물감인데 비단, 테에는 매염제업시 직접으로 염색되고 빗갈도조와서 털옷에 섞잘늡니다만 미명베에는 적당치못합니다.

그다음에는 물감을 물에녹이는데는 물감의 종류와 분량의 다소에따라 일정치안흐나 대체로 넘비가튼데 물감을 술잔으로 너코 물붓소곰처서잘탄뒤 헝겁에대어 걸러서 다시남비에 못고물을 더부어 저으면 됩니다

물감을 물에타는 비례를말하면 직접염료는 물을 그염료의 이삼십배, 류화염료는십배, 염기성염료는 오십배내지 백배, 산성염료는 사오십배가량이 적당합니다.

十三日(金曜)

◇午後六時 科學이야기ABC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古代人의꿈 李萬圭
◇同七時三〇分 講話 社會敎育과圖書 金晉燮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유산가 三、선유가 四、양산도 郭山月 郭明月
◇同八時二〇分 (東) 吹奏樂 一、小細曲…드뷔시ㅡ作曲 (가) 배에서 (나) 行列 (다) 舞踊曲 (라) 누엣트 二、波濤 瀛士風舞曲『音樂會의프로네ㅡ즈ㅡ』숏리ㅡ누作曲 陸軍戶山學校 軍樂隊 指揮樂長 河田國一
◇同八時四五分 演談 感孝代命 玄哲

十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一、英雄行進曲…무니데르作曲 二、舞曲…마넨레作曲 三、밤의그림자…프가ㅡ란디作曲 四、『椿姬』拔萃…베르듸作曲 五、馬夫의노래(西班牙民謠) 六、거리音樂(西班牙民謠) 京城맨돌린·앙상블 指揮 高橋 功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코(鼻)의로맨스 醫學博士 姜日永
◇同六時 아코ㅡ듸온과실로폰 一、山谷間의등불 二、콕쿠ㅡ왈츠 三、봉숭낭개 四、月光千金 五、國境의거리 六、양산도 아코ㅡ듸온 金文星 실로폰 韓慶南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자멘홉博士의生日을마지하면서 萬國에스語協會朝鮮委員 蔡錫合
◇同八時 流行歌 一、빨떠러가세 二、懷抱千絲 三、故鄕 四、靑노새 五、꿋노래 盧碧花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二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배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卞虛紅 洪小丹 大笒 朴鍾基
◇同八時四五分 라듸오드라마 美人의金단추 全二景 配役 李英姬…崔庚善 李英春…金紳英 朴梅花…韓惠心 張智淵…金海雲 金澤烈…吉七水 裁判長…李流星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十五日(日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三銃士 李承雨
◇同一時二〇分 室內樂(레코드演奏) 絃樂四重奏曲 C長調 슈ㅡ버트作曲 第一樂章 안단테알레그로 콘·모ㅡ토 第二樂章 안단데콘·모ㅡ토 第三樂章 메누엣토 第四樂章 알레그로 (모리스카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알버ㅡ트·프리스카 第二빠이올린 우아잇트 베올라 CE케르너 첼로 ㅡ문히호ㅡ란드)
◇同六時 合唱과齊唱 一、合唱 1、봄소식 2、봄비 3、旅愁 4、가을 5、배ㅅ노래 6、대장쟁이노래 二、齊唱 1、벗꽃 2、秋夜 3、아가야배다자 同德女高普 生徒 피아노伴奏 金碩淵 指揮 鄭淳哲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農林의覺醒 大東斯文會庶務部長 權寧浩
◇同七時三〇分 (東) 管絃樂交響曲 短調 諸井三郞作 第一樂章 천천히ㅡ元氣잇게너머재지안케 第二樂章 大端느리게…安靜하게中庸으로 第三樂章 快活하게ㅡ强勢을부처서元氣잇게 第四樂章 發想으로서緩徐하게ㅡ퍽急速히ㅡ速하게 壯大하게 新交響樂團 指揮 알렉산더모기레프스키ㅡ
◇同八時一五分 歌曲 一、羽調 頭擧 二、羽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文明仙 徐山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五分 크리스마스 칸타ㅡ타 女聲合唱 一、녯날한밤중의노래…마조作曲 二、베올레헴…석큰스作曲 三、뭇별아래…뿌라운作曲 四、깃븐겨울…빈센트作曲 (崔永愛·李麗姬) 五、나사렛…전스톤作曲(李兌榮) 六、별빗밋치는곳…뽀허미안개롤作曲 七、오거룩한밤…애담스作曲(鄭貞粉) 八、거륵한아기자라…우래밍톤作曲 九、화가…스코벨作曲 (李慶煥·李兌榮) 一〇、저牧者들…나인스作曲 十一、童貞女의자장노래…뻭커스作曲 十二、노래해노엘…전스톤作曲 十三、보라 그별…엘니作曲 十四、救援의主가나섯네…키울作曲(鄭福德) 十五、朝鮮자장노래…프로코푸作曲 製導 글리클럽 指揮 尹聖德 伴奏 金福實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新京) 滿洲音樂(小鼓手) 新民京劇舍劇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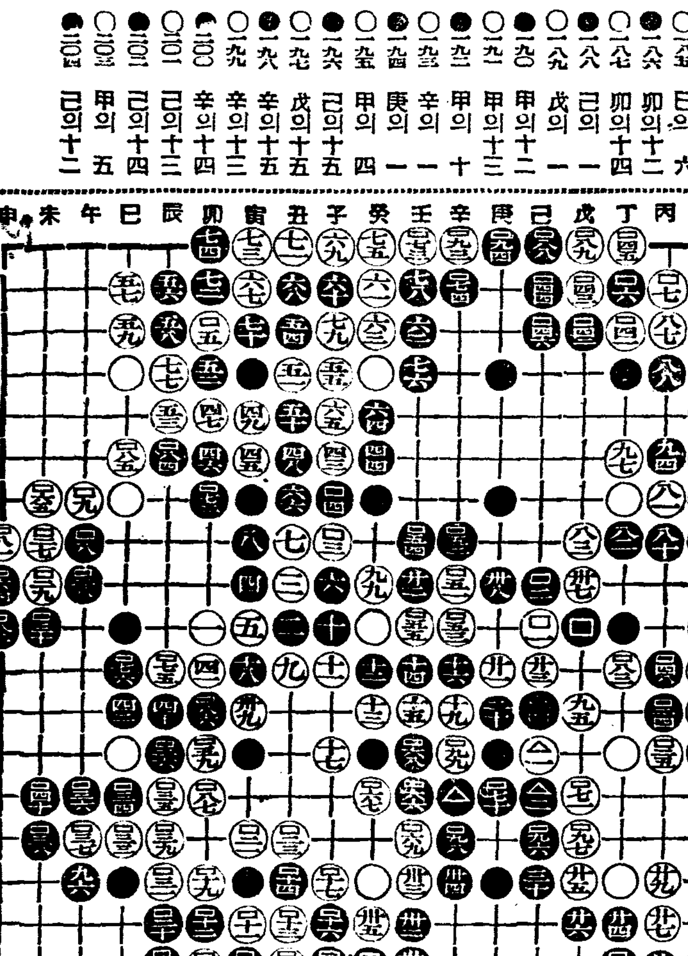
曆

十二月十四日(土)
十一月建戊子(大)十九日
甲子·金·氏·建
●祭祀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二日)
●冬至二十二日(廿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丁奎春
黑(六點從) 李英鎬

○一六五 巳의六
●一六六 卯의十二
○一六七 卯의十四
●一六八 己의十一
○一六九 戊의一
●一七〇 甲의十二
○一七一 甲의十三
●一七二 甲의十
○一七三 辛의一
●一七四 庚의一
○一七五 甲의四
●一七六 己의十五
○一七七 戊의十五
●一七八 辛의十五
○一七九 辛의十三
●一八〇 辛의十四
○一八一 己의十三
●一八二 己의十二
○一八三 己의十四
●一八四 甲의五
○一八五 己의十二



◆蔡極文氏評 黑이 卯의十二로 先次 置石한은 一局 勝敗分析에 精密을 可見이요 黑이 己의十二로 白을 應한도 半劫利는 生한것이다 此等點을 綜合하여보면 二三戶 差錯은 이로써 辨明되는지라 末端收拾이나 初頭排鋪나 大小는 不同이나 其規는 一也니 切勿疏忽於邊末不至也하라

童話 참새의공

崔秉和

참새한마리가 잇섯습니다. 그 참새는 어느날 불연듯

『나는 이세상에서 아모쓸데가 업고나』

하고 탄식하엿습니다. 그때는 맛침 여름이엿습니다. 들에나 산에나 꼿들이 한창피여잇섯습니다. 육은 가는곳마다 잇스므로 참새는 날마다 들과 산으로 날너단기면서 놀고잇섯습니다.

이러케 지내는동안에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되드니 또 얼마안되여서 눈이오게되엿습니다.

그래서 오신눈이얼고 땅은 무쇠덩어리가티 단단해저서 일군들이 어름과눈을 파헤처서 길을 맨들지안흐면 거러갈수업게 되엿습니다.

『아아! 춥다. 어디를 보든지 눈뿐이지 먹을것이라고는 한알갱이도 안보이는 구나』 참새는 들이나 산이나 시내ㅅ물이나 나무나 외롱 눈에덥혀잇는것을보고 이러케 탄식하엿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먹을것이 업서서 매우 고생을하다가 들가운데잇는 외따른집으로 날러갓습니다

그집엽헤는 조고마한 시내가잇고 그우에 다리가 노여잇섯습니다.

참새는 창압헤가서 슬픈듯이 짹! 짹! 울엇습니다. 그러니간그 집에서사는 할아버지가

『가엽슨참새다. 배도곱흐겟다』 하고 빵부스럭지를 창틈에 노아주엇습니다. 참새는 즐거운듯이 그것을 먹엇습니다. 참새는 그후부터는 날마다 그집창으로 날너가서 언제든지 빵부스럭지를 먹엇습니다 이러케해서 참새는 겨울동안 죽을것을 면하엿습니다.

어느덧 추운겨울도 지나가고 봄이되엿습니다. 눈은 점점 사러저버리고 들과산은 연두빗으로 물드려가고 고목이 다된삽(杉)나무까지 생기잇게 보엿습니다. 해비츤 포근히 빗치어 여러새들이와서 자미잇게 노래를하게 되엿습니다.

참새는 이때 예전집 창으로 날너갓습니다. 먹을것을 어드러 간것이 아니라 추운겨울동안목숨을 살려준집이 그리워 저서 간것입니다. 참새는 창틈에안저서 목소리를 크게내가지고 노래를햇습니다.

그런때 그때는 집주인이 갈려서 하라버지 대신에 젊은양주가 살게 되엿습니다.

참새는 주인이 갈린뒤에도 가지각색꼿이만발한 뜰에가서 노래를하엿습니다. 어느때 이참새가 대문간에서 짹! 짹!! 울고잇느간 젊은아씨가 나와서

『참 귀여운참새로구나. 사람에게 길드럿는지 때때 놀나오는구나』 하고 왜떡을던저 주엇습니다. 참새는 깃분듯이 적은눈동자를 반작반작굴리면서 먹엇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때때 그집으로 갓습니다. 주인아씨는

『참! 귀여운참새다. 날마다날마다 놀너오너라. 맛잇는 음식을줄게』 하고 말하엿습니다. 참새는 매일과가티 그집으로 날너갓습니다. 그리고 맛잇는 떡을 먹엇습니다.

그러케하는동안에 주인아씨와 친해저서 나종에는 방안에까지 드러가게되고 어느때에는 밥상에 올나안저서 짹!짹!어리는 때도 잇섯습니다.

또 더운여름이 지나가고 쓸쓸한가을이 차저오더니 어느듯 추운겨울이 닥처왓습니다. 참새는 때때 그집으로날러가서 왜떡을 비더 먹엇습니다.

어느날밤 참새는 배가 몹시곱하서 창틈으로 새여나오는 불비츨따라 그집으로 날러갓습니다 그날밤은 금음날밤이라 캄캄하고 무서운 밤이엿습니다.

참새가 창압헤가니간 또한 나무뒤에 수상한 그림자가 보엿습니다. 집속은 쥐죽은듯이 종용하야 소리하나 나지안헛습니다. 참새는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자세히 보니간 그것은 검정헌겁으로 얼골과머리를 가린 도둑놈이엿습니다.

참새는 짹!짹!!울면서 열심으로 유리창을 두들기엿습니다. 잠이들랴말랴한 주인아씨는 무슨소린가하고 이상스럽게 생각이드러서 창문을여니간 참새가 방안으로 날러드러와서 허둥지둥 방속을 날러도라다니엿습니다.

그때 주인이 무심코 창밧글내다보니간 나무뒤에 힐긋 수상한 사람의그림자가 번치엿습니다. 주인은 깜작놀라서

『뜰에 누가숨어구료 내 보구 오리다』 이러케 말하드니 그날밤 단기러와다가 자게된 동생과 두리서 문을열고 밧으로뛰여나왓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한놈은 뒤도안도라다보고 도망해버렷습니다.

『저놈을 붓잡어라』 하고 주인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뒤를따라가니까 그 수상한놈은 담을훌적 뛰여넘어서 밧으로 나가버리엿습니다. 두사람도 서슴지안코 담을 뛰여넘은뒤에 그뒤를 쪼차갓습니다. 그래서 다리엽헤서 간신히 붓잡게 되엿습니다.

도둑놈은

『고놈의 참새때문에 들켯다』 하고 참새를 죽일듯이 서틀넛습니다.

주인양주는

『참새때문에 도둑을 안마젓다』 하고 퍽 깃버하엿습니다. (끗)

短篇小說 惡夢 【十二】

咸大勳 作
夕影 畫

룸펜사의 행복스러운 하로ㅅ밤! 그리고 그다음날 아츰에 일어난 사랑싸홈! 그일이 잇슨뒤를 니어 그들은 매일매일 평화로운 꿈속에 옛사랑이 다시 불타기 시작하엿다. 그정렬적인 영자의 순정은 날이갈사록 속속드리 붉길이 더해갓고 또가진 여성의 화력에서 다시새로운 령을 차즈려는 원철에게는 이것이 또한 참된 애연의 살오리가 되여 영자의몸을 천줄만줄로 감아노앗다.

그들은 단한번의 전화라도 어하엿고 그들은 미칠것가치 급업스면 그들은 하로만 못맛나도 애닯원하엿다 그리하야 그들은 마ㅡ치나아가는 렬병이 다시도진것처럼 한번식어든 사랑의열병은 온몸을 불살라버리고 말엇다.

세상 모ㅡ든것중에 가장 귀한것이 사랑이오 가장 놉흔것이 다시 불붓흔사랑인듯 나날히깁허가는 그들의 사랑은 어느듯 삭풍이 나무꼿헤 불고 흰눈이 펄펄날리는 겨울도 지나고 보드러운 봄바람을타고 또한층새희망의 엄이싹트기 시작햇다

영자의 배ㅅ속에는 지금 사랑의 씨가눈녹은 산우에 싹돗는 풀괴도가치 끔울그리고 잇섯다

『이것이 나오기전에 그문제가 해결돼야겟는데……』

영자는 아레ㅅ배를 자기혼자 만저보면서선잠깬눈으로 천정만 처다보고 잇섯다 끈한봄밤의 절분시간은 덧업시 흘러가는듯 지금 영자는 봄아츰 청아끄레 지저귀는 참새소리를 들으며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불안한 가운데 처녀로써 처음당하는 이일에 머리를 썩이고 잇섯다

『집안 사람이 알문 큰일인데 속히 결혼식을 해야하잔어?』

아즉 어떤혼적은 보히 잔흐나 석달째나 나올것이 안나는 지금에 잇서서 영자는 몃번이나 다시 배를 쓰다 듬으면서 회사사일루 출장간지 한달이나되는 원철이를 고대하고 잇섯다

『이말을 들으문 그이꺽두 조아야할게야 그리구 그문제두 속히 청산허구 나와 결혼식을 평장히 해주겟지』

이런생각이 머리에 떠오를땐 그만 미칠듯이 원철이가 금잇고 또 속히만나 그사실을 보고하고도 시펏다

『어제나 오늘쯤은 오신댓스니 회사루 전화나 걸어볼가?……그러치만 그이가 오시문 오신다구 전보라두 잇섯슬텐데 암아두 아즉 안오섯나봐……』

혼자 이러케도 생각은 해서두 가슴이 설레여서 더누어잇슬수가 업섯다 영자는 그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치우고 세수를하고 밥상을 대햇다 그러나 입떼이 재까라안지 안엇는지 별로 입맛당기는 음식이 보히지 안는다. 시원한 동침이 국을 든채로 한사발 쭈욱 드려마시고 영자는 그만 수저를 노코나서 나른해지는 몸을일으켜 바끄로나서고 말엇다. 비닭이 멧놈이뜰안에서 놀랜듯이 날아가는 봄날아츰은 맑기도하고 푸듣하기도 하다. 명랑한 봄기운이 아즈랑이를타고 아츰아즐하고 삭돗는 뜰악의 작약은 발간순이 어엽뿌다. 꼿봉을이진 개나리울타리를 넘어 영자는 그바로엽 사진관으로 전화를 빌리 드리섯다.

『××회사지요?』

『네!』

영자는 전화통을 대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입을열엇다.

가알핀 교환수의 목소리가 명랑하다

『김원철씨게루대주세요』

『출장가서서 아즉안도라오섯서요』

『네에 언제오시나요!』

『잠간만계서요!』

수화기로 앵앵소리가 들리는걸 한참 기다리고잇노라니

『내일오신답니다』

하고 교환수는 친절스럽게 가르커준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겨우안심이되여 전화를 끈고나서 마악사진관을 나오려고 할때

『영자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놀라 뒤를도라다봣다 거긔는 뚱뚱하게도 원철이의누이 원경이 자긔의 옛날가장친한동모 원경이가 웃는얼골로 이층에서 내려오고 잇는이것다

學藝

지난一年間의 朝鮮演劇界總決算 特히戱曲을中心으로 (1)

柳致眞

위선 今年一年동안에 發表된 戱曲이 몃篇이나 되는지? 한번 상고하야보기로하자。

마츰 내게 『劇藝術』第三號가 잇다 거기에는 今年 一年間에 朝鮮文으로

【發表】된『劇藝術文獻總目錄』이 所載되엇다。그目錄은 評論部와 戱曲部로分類되어잇는데 그中에서 戱曲部의今年所産은 創作飜譯을合하야 二十餘篇밧게안된다。細目을들어보면、朝鮮、東亞、中央三新聞에 新年懸賞文藝에 當選된三作品을 비롯하야、李無影作『한나제고무는 사람들』一幕。宋影作『어서幕을다더라』二場。朱永涉作『나루』一幕。朴英鎬作『情恨의밤車』그外에 筆者의拙作으로『소』三幕과『당나귀』二幕이잇고朴鄕民、朴松、羅丙漢等諸氏의 作品도잇다。그리고 上記『劇藝術』誌의總目錄에서는 昨年의作品으로 取扱되엇지마는 李無影作『톨스토이』三幕(新東亞에 連載하야 今年初에끗낫다)도 여기서 問題삼지안흘수업슬것갓다。

以上이 나의記憶에 今年에發表된 創作戱曲의 全收獲을 占하는것이다。그리고 그外에 飜譯戱曲은 둘처서 不過二篇밧게 안되다 그것도 모두中國것이다 即 田漢作『湖上의悲劇』(朝鮮文壇所載)과 歐陽予倩作『荊軻』(三千里所載)이 두篇이 그것이다。이篇으로보아서는 今年亦是戱曲朝鮮의

【收獲】은 凶作을 不免이다。世間에서는 創作戱曲에對한 要求가盛旺한데 全收獲이 이것뿐임은부끄러운일이다。그러면 質的으로는 어떠하엿슬까? 얼마나한收穫과 發展이잇섯는지 위선 몃엇作品의 吟味부터 始作하여보는것이 조흘듯하다。(더구나 今年에는 戱曲에對한 紙上吟味가 한번도업섯기때문에 이機會에한번作品吟味를 試하는것도 無意치는안흘것이라고생각한다)

韓泰泉作『토성낭』一幕(東亞日報新年當選)이作品은 무엇보다도 그構成에잇서서 簡潔한맛이 조와다고볼수잇다。作者가 이作品에 肉迫하는意氣는 이作品의스케취式의 散漫한內容에 한迫力을준것은事實이다。그러나 往往作者의 熱情이 너무도 그얼굴을 作品의 正面에 내어민때가 잇서서 (淳八의臺詞等) 오히려 이作品의評價를 低下시키는데가 업지안헛다。從上에서는 二十歲에 詩를쓰고 三十에 小說을쓰고、四十에 戱曲을쓴다는말이 잇는데이말은 戱曲에서는 極히『客觀化되지안흔熱情』은되도록삼가란뜻이아닐까한다。그리고 또이作品의마즈막에 德實이가 自殺한다는것은 한事件으로서 너무唐突한깃이고

【効果】로써 너무 無理하다고 생각함은 내한사람의 意見일는지?

그러나 『토성낭』은 以上과가튼 허어잇스면서도 今年創作戱曲의 優秀한地點을 占한다。

海西紀行 (7)

朴花城

압서가든 靑年은 부채만한 落葉을 주어 나를 주면서

『이것이 우리게 (우리동내)만잇는 가랑입이지오。저거보세용。枯木이 되어지 안홉네까?』

하고 아즉도 입사귀가좀 부터잇는 큰나무를 가라침니다。대체 가랑입이라면 풋나무단스속에 들어잇는 一年동안 살아잇는 그런 적은나무이거니만 햇지 이러케 堂堂한 큰나무가되여 이런 큰입사귀를 가젓다는것을 내가 알리가 업섯습니다。

落葉을 주어 茶를 다린다는 仙人의 살림에도 이가랑입 두개만가지면 넉넉히 끌른茶를마실수잇슬것이오 우리집 다섯식구의 밥쯤도 이落葉 한삼태기만 가지면 념려업시 밥을 익힐수 잇슬것입니다。

그러나 손수건의 대신으로 물건이라도 쌀수잇슬만큼 두껍고 든든한 이落葉은 稀罕저렴 싹혀서 썩어가기만 하는것입니다 떡이나 아깝지 아니합니까?

큰바위가 새빨간 壁처럼 되여잇는 凌虛臺를 보고 栗谷齋의 자최를 돌아 靈泉에 왓슴니다 엣날 栗谷과 그弟子들이 마시고 살앗다는 이물은 지금은 近傍人에게 조흔 藥水로써 고힘을 밧는다 합니다。

나는 가랑입으로 그릇을 만드러 靈泉水를 떠서 몃모금마시고는 내모든病이 씻슨듯 나어저기를 맘으로 바랏습니다그러고 물속에 얼마던지 들어잇는 銀杏열매를 세개 건저내가지고 가랑입에 싸서 이곳의記念으로 가방속에 너헛습니다。

聽濤堂앞을 지내오는 물은여기와서 고이고 고여 큰沼가되엿습니다 그 푸르고 푸른물빗 밋바닥이 환-히 드려다보이는 이沼의 물깁히가 세길쯤 된다는것에 나는 놀내지 안흘수업섯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後從의 叢叢에도 不拘하고 사람들이 모혀와서 게집과 술의游興도 하며 목욕도 하다가 가끔 이말고깁흔물에서 不祥事도 냇다고합니다。

그러니 만일 사람에게 永生의 魂이잇서 栗谷도 그러하다면 自己의 淸淨하든 遺趾의 오늘날 貌樣한 이물들을 보고 海犬 깁흔곳에서 얼마나 빼앗흔 長歎을 發하고 잇겟습니까?

바다막혀 묵지이오
山은꺼저 길되더라
世上이 뒤바뀌고
人情도 변하거든
흙으는 이물쯤이야
더러힌들 어떠리。

이러케 속삭이며 시내가우북한 잡초를 헤치고 도라오려다가 문득 다시 돌아보니 저쪽으로 보이는 절벽!絶壁이라니 깍거나린듯한 殺風景의 그러한 절벽이 아니오 이沼보다도 더 깁흔듯 시퍼러케 보이는 큰沼에 금시에 떨어저 드러갈듯 위태위하게 보이는 솔나무로텁힌 蜂오리가 물속의 제그림자를 넌즛이 굽어보고 잇지아니한니까?

나는 몸을 도리키고 발길멈처 망연이 바라보고 섯다가

『참 기막힌 絶景이로군』

하고 길이、탄식하고나서

『이게 四曲 松崖라구요?그럼 저건 무슨曲이오? 저건 정말 一曲에 드러가야 할 絶景인대。저게 松崖아니요?』

하고 靑年에게 물엇스나 靑年은 머리를 흔들어 不定하며 걸어갑니다。나는 마지못하야 靑年의 뒤를따라 걸어가면서도 한거름에 두번식 돌아보다가 기어코 옷독서서 栗谷의 銘詩를 탄햇습니다。

『정-못이즈시는 모양이군요。이제야 그曲만 보섯는대 빨니가서야지오。』

하고 나를 돌아보며 靑年은 갈길을 재촉합니다。

漢詩募集

題 迎春

押 生

限十二月十五日

(薄謝進呈)

新民謠의再認識 —아울러日本民謠運動의昨今— (3)

金思燁

이가티 民謠의 特質을 살펴보면 民謠는 한個人이 任意로 創作하지못하는것이고 設令創作을한다드래도 不完全한것이되고말것이니 新民謠의 創作云云은 不可能할뿐아니라 不必要하다는 結論을엇게될것이다。

그러면 果然우리는 新民謠를 不必要하며 그의 發生을 생각할수업슬가? 그러나 時代의推移에따라 이不必要한듯한것이 必要하게되엿고 不可能한듯한것이 可能한것이되엿다。

民謠를 떠나서의 民衆의生活은너무나 寂寞한 沙漠과갓고그들의 感情은 潤澤이업스며 倦怠를 늣기게한다 民謠는 그들의 音樂 그들의술 그들生活의藥味와도갓든니 곳그들의 藝術이다。

본시그들의 感情은 野性에각갑고 生活은 素朴하엿스며單調롭든것이 時代가 進展함을따라 社會의 機構가 複雜해지자 그들의 生活 感情도 錯雜 하게 되여오며 時代의 思潮에 感染되게되다 이러케 되면 그들은 日常生活의 險思을 美化하고 眞實化하며 慰安을엇는 唯一한憧憬으로써 새로운藝術을 渴望하게된다。그러나 그創寫을 救함만한 自己들에適合한 藝術을制作할수업슬때가잇다 萬若그럴때 그들가운데서 한無名의 即興詩人이나오면 그들은그를經聞한다 그러나 直接創作에 際하여서는 民謠詩人은 어데까지든지 民衆의 代辯者로써 陳腐한經聞에미처서 노래하여야할것은 勿論이나 그가운데 或自己의 生活感情을 民謠體로 表現하게될때도 잇슬것이니 이것은 少하한것질수업는일이다。

그러나 前者가 第一義的인것은 두말할것도업다。거듭말하거니와 이新民謠의 重點이 決코 民謠領域의 그全部를占領할것이 아니고 어대까지든지 民衆이作家가되여 自己들의 感情을 民謠로써 表現하야 洗練되것이 主人格이라는것을 이즐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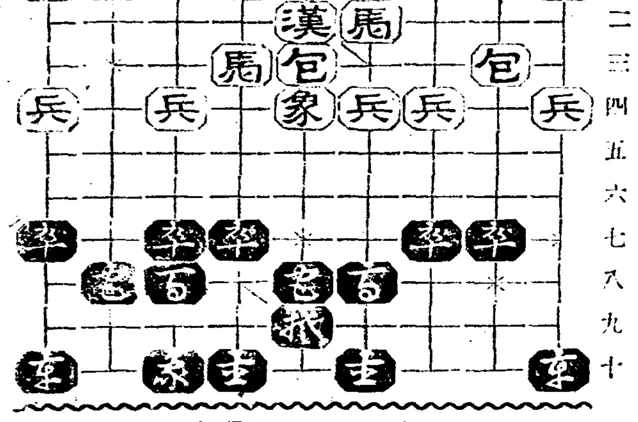
다음 한가지 論議하여야할問題는 비록 우리詩壇에는 아직 한사람의 民謠詩人이업고 眞正한 新民謠의 發表가업섯다는것은 압헤말햇스나 그러나 近來에이르러 各『레코-드』會社에서 每月가치 發表하는 레코-드月譜를보면 新民謠란『레델』을 부치고나오는 流行歌가 相當히만타는것이다。『郁光』今月號에 洪蘭坡氏는『樂室偶感散抄』에서『길거리나 店頭에서 騷亂스럽게울러나오는『레코-드』의떠들은『내소리판한장사주시오』하는 哀怨聲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야 그低級함을 睥睨 하엿스나 『레코-드』가 大衆을 對象으로한 商品이란 名目 以上에 그것이 民心에 作用하는 影響은 크다면크지 그다지 적은것이아님을 生覺할때 音樂家나 詩人은한번쯤은 그것을 問題삼아 缺點을들고 失敗의 原因을 指摘하야줄 義務가 잇지아니할가。

筆者는 일슥이 新民謠란 表題에 興味를갓고 더욱이各『레코-드』會社文藝部에는 自他가 共認하는 詩人도석겨잇서 編輯하는것을 아는것만큼 큰期待를가지고 살펴왓스나 新民謠라고하야 流行歌와 區別한것도 그 音階에 何等限界線을 認定할수업는以前非의 民謠엿슴에 너무도失望하엿다。新民謠를 創作하는이가 民謠에 對한 少許의理解도업는지라 民謠와 流行歌와의 相違가 詩的形式에 잇는것이아나고 그內容的 思想과 音樂的素質에 잇서서 意識하여야 한다는것을 모르고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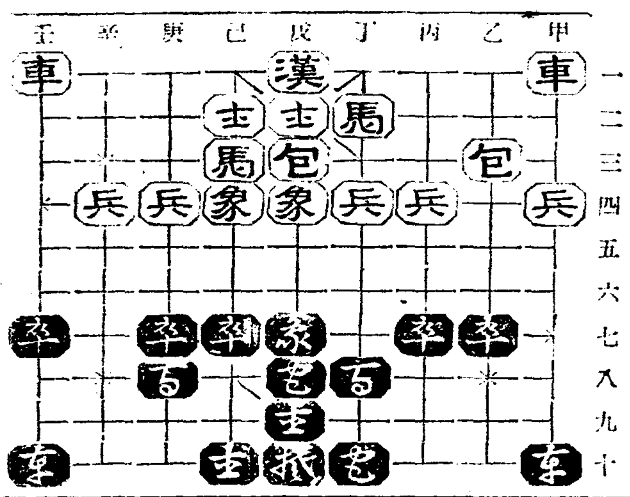
楚先手 漢一象 李在鳳 對 丁奎東

◀十手圖▶



◀十二手圖▶

庚七 象 戊七
壬四 兵 辛四
辛八 包 己八
辛一 象 己四
戊九 卒 戊十
戊二 漢 戊一
丁十 士 戊九
丁一 士 戊二
己六 包 丁十
己一 士 己二



黑風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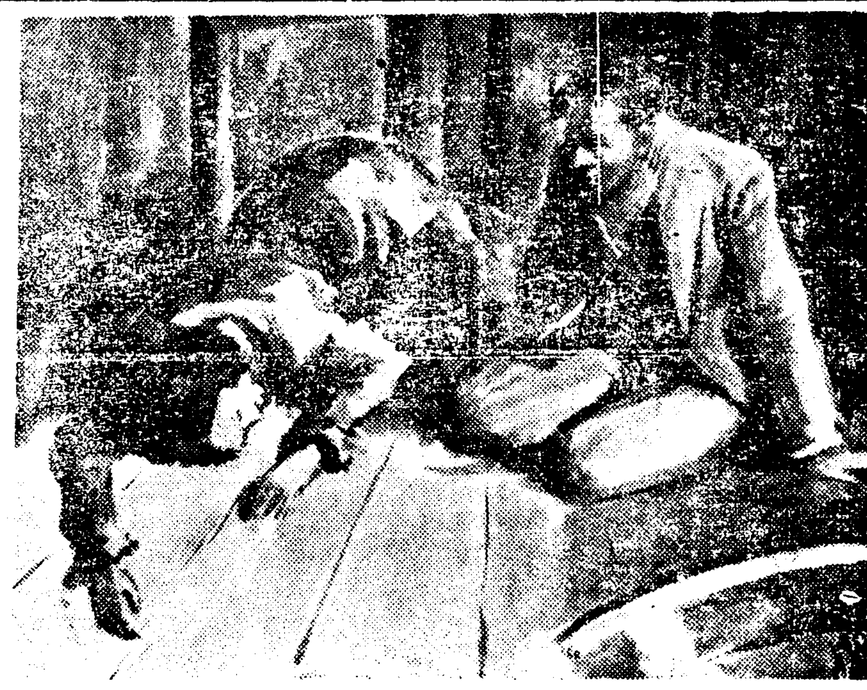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9

(술잔을 입에서 떼지못한채로 불의변을 당한 왕한은

『악!』

하고 소리를 치면서 콜난의 팔을 잡는다는것이 비수의날을 잡엇다 콜난이가 비수를 빼는 바람에 왕한의손이 상하얏다콜난은 왕한의 피에 물드른 비수를 다시 왕한을 향하야 겨누면서 전신의힘을 다하야 찔넛다 왕한은 날새게 드러오는 칼을피하면서 콜난의팔을 잡는다는것이 언겁결에 콜난의등을 첫다 콜난은 왕한의압헤 업푸러지면서 자가의칼에 자기의 가슴을 찔넛다 콜난의 가슴에서는 피가 새암솟듯한다 왕한의 목에서 나는 피와 함류가 되야서 방바닥에 여러갈내의 적은 내를 이룬다 (이것이 과연 사랑하는 왕한과 콜난이가 피로 먼저 결혼을하는것일까?) 왕한은 급히 콜난



의 가슴에서 칼을빼이 [illegible] 콜난은 이미 혼도하야 거의 의식이업섯다 피는 쉬지안코 흐른다 왕한은 여관주인을 불너서 그사변에대하야 절대비밀을 직히게하고 위선 의사를 청하얏다 의사가와서 응급치료를 하얏는대 의사의말에 의하면 왕한의목은 빗질녀서 중상은 당하얏스나 생명에는 관계가업고 콜난은 가슴을 찔니면서 간경이 상하야서 생명을 구하기가 어렵다한다 의사는 왕한과 콜난을 입원식혀서 치료하기로 하얏다

이일은 과연 웬일일까 왕한과 콜난의 새이에 이러한 참혹한일이 생겨나리라고는 몽상도 할수업는 일이오 구차히 이일을 추측하자면 콜난이가 다시업시 왕한이를 사모하야서 결혼하기를 기대하다가 어대로 부터서든지 왕한이가 다른녀자와 결혼한것을 알고서 락망과 질투가 극도로 발작되야서 심리상태가 변태적으로 혼란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한일이라고밧게 생각할수가 업는일이엇다 그러나 그 사변은 누구라도 추측할수잇는 그러한 리유에서 생긴것이 아니오 다른 하늘에서 떠려저 왓다고 할만한 뜻밧긔 사변이엇다 그 사변의 원인과 유래는 기식이 엄엄하면서도 자기의 행동을 명백히 하자는 콜난의말에 의하야서 알게되얏다

콜난은 본래 상해에서 왕한의손에 죽은 장지성의 무남독녀 외딸로서 이름은 쌍월(雙月)이니 자기 아버지가 달이 둘이 돗어오르는것을 꿈꾸고서 콜난이를 배엇다고 하야서 쌍월이라고 이름을 지은것이엇다 지성이가 왕한에게 죽기는 마친 콜난이가 미국에 류학하다가 집에다니려온 때엇다 콜난은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참변을 당한 뒤로 놀나고 애통하는것은 말치 말고라도 특별히 남의손에 비명으로 죽은것이 철천지한이 되얏고 가장 친륜을 중히여기고 부모에대한 복수관념이 철저한 청국의 륜리관념으로 콜난은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를 [illegible] 불공대천지수를 자기의손으로 갑흘것을 결심하엿다 콜난 이가 녀자로서 그러한 결심을 한것은 남의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나니 보다 특히 자기 이외의 다른 형제가 업서서 자기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갑흘사람이 업다는데서 나오것이엇다 그리하야 콜난은 중갑을 주고 비수하나를 특별히 만드려서 가지고다니게 되얏다 콜난은 그비수를 언제든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한번씩은 비수를 내어서 만저보면서 원수갑흘 생각을 일깨는것이엇다

콜난은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자기집 자동차 운전수라고 단정하얏다 그리하야 어느때든지 자동차 운전수를 찻기에 고심하얏고 어듸를 가든지 사람이 만히모인것을 보면 밤낫이 자동차 운전수가 잇는가를 눈여겨보앗는것이다 콜난이라고 거짓이름을 지은것도 그뒤부터요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주소성명을 말하지 안는것도 그까닭이엇다 한편으로는 장지성이가 유명한 부자요 인색한 사람으로 남의손에 죽은것을 모르는 사람이 업슬만큼 소문이 낫슨즉 그의 딸이라고 남에게 알니는것이 자미가 업섯고 또는원수를 찻기 위하야는 자긔의 본색을 감추는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얏든것이다。

癩

三개월만에낫는名약고효면보 숣책임계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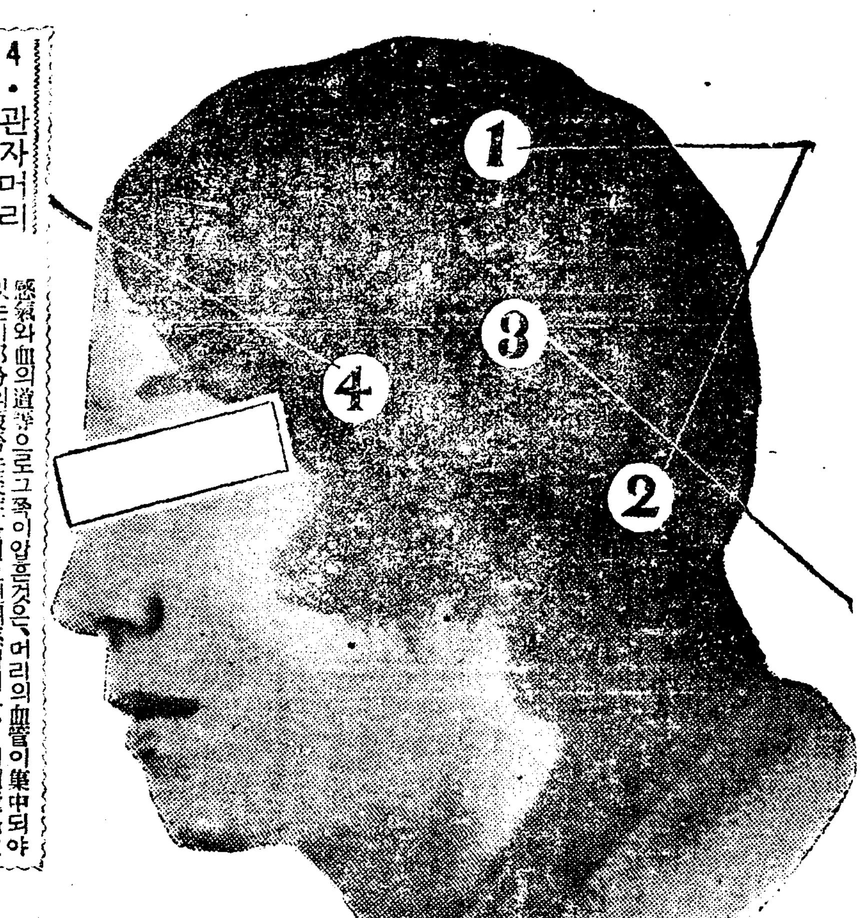
釜山府?町 回春藥院

아조큰 잘못입니다

똑가치압흐다든가 괴롭다고하는症狀을 治癒한다고하야서 單一頭痛藥(鎭靜劑類)과『頭腦榮養劑하레야가』를 同一視하는것은 큰잘못입니다。單一頭痛藥은 痛症과苦惱를但只一剎那的으로 抑制한今病因에는 아무런効力도업습니다 그뿐안이라心臟을弱하게하고 胃腸壁을헐게하야서먹이면 먹을수록 一層胃腸을害하야서도 리혀腦症狀에惡影響을 밋치게하는 副作用이잇는바『頭腦榮養劑하레야가』는 痛症에빨이들을 뿐안이라머리의病根인燐、갈슘等의榮養素의不足을 補充하야腦症狀과 關係깁흔胃腸을 튼튼케하는데 副作用의念慮는絶對업슴으로 먹으면먹을수록 더욱더욱 머리를조케하고 胃腸을强化식히는 特長이잇습니다 머리의榮養補强劑로써『하레야가』가 推奬되는所以는 實로여기잇습니다。

1・大腦 2・小腦 이근처가鉛塊와가치무겁다든가、記憶力이鈍하여젓다든가일업시골이난다든지하는症狀은이大腦、小腦에榮養이不足하고、記憶、思考中樞와神經系의作用이鈍하여짐으로『頭腦榮養劑하레야가』로燐을充分히補給하면自然症狀은輕快하게되고、記憶力은大端鮮明하게됩니다。

3・腦下垂體 여기에燐이缺乏해온즉腦호르몬의 分泌이減少됨으로、事務에倦怠가잘나고、精(性)力이減退하나、『하레야가』는머리를조케하고精力을蘇生케하는効果가잇고이것은腦호르몬原료인燐、칼슘의主配品인關係입니다



4・관자머리 感冒와血의道等으로그쪽이압흔것은、머리의血管이集中되야잇는이部分의疲勞는炎症을일으킨關係입니다、이런境遇血管을一時擴大한頭痛藥이라는것은剎那的으로痛症을緩和하나이것은、副作用이顯著함으로그런걱정이업는『하레야가』로根本的治療를할것이다

이러한症狀은 업습닛가?

◇頭痛、眩氣가난다。
◇쪽머리가개질것이압흐다。
◇머리에洗面器를씨여논듯하다。
◇今日은머리를너무使用하야서머리가멍하다。
◇別일도업는데 머리가흐히疲勞하야根氣가게속못한다
◇아무리읽어도외여지지안는다。

萬一이런症狀이잇스면그것은머리의榮養素가不足하야잇는證據입니다

이런때『머리榮養劑하레야가』의一服은 從來의症狀만에作用하는頭痛藥과는달너서頭腦細胞의原基인同時에頭腦作用의原動力도되는燐、칼슘等의榮養素를直接머리에 補給하야서 苦痛에도빨리듯고 머리의 根原的補强療法이라고할만한것으로 一日一服의『하레야가』는 疲勞와頭腦一切을 이저버리게하고언제나 爽快한腦力을持續케하는、現代人에 업서서는아니될 好適한最新頭腦藥입니다。

頭痛 齒痛

はれやか 하레야가

全國藥店에잇슴 價 0.30 0.50 1.00 5.00 3.00 2.00

收穫은凶年인데 賭租는豐年以上
作人울리는小作料斤量納入制
全北農民의抑鬱한事情

【全州】금년에는 한발과 충재로인하야 추수의 수확이 작년에 비하야 반감이나되엿슴으로 일반 농가에서 즉접으로 밧고잇는 영향은 다시 말할필요도 늣기지안커니와 지주측에서는 흉년이거나 말거나 소작료 중수에잇서서 조금도 사정이 업시 례년보다 오히려 더만히 중수하여가게될으로 일반 소작인측에서는 적지안흔 불평을 품고잇스나 이것을 지주측에 반항한다면 소작권을 빼앗기게 되며 소작권을 빼앗기게되면 아사선상에서 방황하게 될으로 꼼작 못하고 불행한 운명만을 한탄할 따름이라는데 이제 이에 대한자세한내용을 대강 듯는대로 적어보다면 매년 지주측으로부터 소작료중수를 매두락 한섬이란 소작료를 도량에 달아서 평균 일백팔십근식을 중수하여나왓다는데 금년에는 한발과 충재와겹다가 풍재로인해서벼의 성숙이 완전치못하야 일백팔십근의 근량을 채우라면 한섬닷말이나 가저야 채워짐으로 결국 흉년이면서도 소작료는 례년보다 두말닷되식 더 납부하게됨으로 농민측의 막대한 영향과 불평이 적지안타하며 이에 대하야 소작인 모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小作人某氏談 농사는 흉년인데다가 도조는 더바칩니다 얼마전에 다목농장(多木農場)에서 도조를 말로되야 밧지 안코 근으로 달어밧는다고 서는 어느지주고 다 근으로 달어바듬니다 한섬의 근대가평균 일백팔십근인데 금년에는 벼가 성숙이잘못되엿슴으로 백팔십근을 채우라면 두말반을 더너야만 일백팔십근이나가니 결국 흉년에 도조를 더밧치게되어 곱쌍한 소작인만 더 불상하지요 꼬박꼬박 일백팔십근이래야만 중수하지 한눈만 틀려도안됨니다 이러타고 감히 누가 지주에게 말을해요 말하는 날이면 논 떼이는날이니까 꼼작 못하고 그대로들하지요 운운

아동을 무보수로 교수하고잇다는데 일반은 박씨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連三日繼續 三四次式停電
會寧電氣非難

【會寧】회녕전긔회사에서 송전하는전긔는 종래에도 종종고장이 생긴다고 비난이만흔바 지난팔일부터 련속삼일 계속 간을 하루밤에 삼사차식 고장이생기여 어떤때에는 이삼십분 동안을 암흑세계를 만드는일이흔으로 일반수용자측에서는 불평이만흔바 이모양으로 하고도 료금은전례로 바듬가하는 여론이 자자하다고한다

載寧郡下大火 四棟全燒
損害原因未詳

【北栗】재령군 내종시(載寧郡內宗市)에서는 지난 십륙일 새벽두시반경, 시장중앙지점에잇는 중화요리 중성관(中盛館)에서 불이나서 때마츰 폭풍으로 회세는 맹렬하야 이웃에잇는 내종우편소(內宗郵便所)와 그밧게이동(二棟)합사동(四棟)을 전소한 후 북률소방조(北栗消防組)의진력으로 네시반경에야 겨우 진화하엿는데 손해와원인은 아즉 조사중이라하며 우편소의 중요서류는 꺼내여옴으로 사무는여전히 보리라한다.

聖德學院에서 學藝會를開催

【公州】충남 공주군 반포면성덕리에 잇는성덕학원(聖德學院)은 경영주인 심재숙(沈載叔)씨의 물심과노력량방으로 진여한 결과 긔초재산이 완비하게되야 완전한학교로 승격준비중의 현재학원교실이 불충분함으로 명춘에 교사신축을 준비중에잇서 전긔학원의 장내발전은 가장유망하다는바 현재주학생이백여명과 야학생 오륙십명을 수용하고잇서 학원창립이주연 긔렴을하기위하야 오는 십오일에 주야학생의 학예회를 성대히 개최한다고한다

夜半人家에突入 男女三人을斫傷
◇…原因은精神의異狀인듯
保寧郡下의慘事!

【保寧】지난오일오후칠시경에보령군청소면야현리(保寧郡靑所面野峴里)백구십삼번지에사는 신영문(辛永文)(三三)은 그동리삼백팔십번지에사는 현원필(玄元弼)(三七)방에 무단이침입하여 그자사랑에서 놀고잇는주인의 장남용인(用仁)(三三)과 그동리에서 놀러와잇든오중인(吳仲鋼)을 낫(鎌)으로 함부로찍고 그길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또한용인의처되는리유례(李允禮)(二三)를,역시 낫으로 찍어서 그세사람은 모다 인사불성에 빠젓슴으로 즉시광천(廣川)회춘병원(回春病院)에 입원시키고 가해자는 청소주재소에붓들리여 방금보령본서에서엄중취조중이라는바 아무원인어업시 그와가튼짓을 한것을보아 혹시 정신의이상이나아닌가한다고한다

고도망한 사긔한이 운이진하야잡적칠개월만에 경찰에 체포되사실이잇는데 주인공은 장단군진남면 강정리(長湍郡津南面江井里)구장으로잇든 량경환(梁璟煥)(三五)으로 지난륙월이일에 동면석곳리(石串里)에잇는황해도 곡산군 조래경(趙來卿)씨의토지를맛타가지고 논이천사백륙십칠평을 대금이천오백이십원에 절가하야 고양군송포면 가좌리(高陽郡松浦面加佐里) 리병하(李秉夏)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후 대금을 전후삼회에 이천사백원을바다가지고 소유권도 이전하야 주지안코 또다시전긔토지를 타인에게매도하고는 지난음사월삼일경에 경성방면으로 도망하야 이래피신하고 잇든것을 소관 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지난삼일에 경성서에서 체포하야 장단서로 압래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련루자가 상당히만타는바 그중에는 상당한 유지도 잇다고한다

未墾地個人貸付說에 五千住民이反對
一般은當局態度注目

【咸興】경성부 관훈동(京城府寬勳洞)에 주거를둔 홍모(洪某)외 한명은 지난삼월중에 농림지 개간급 목축업을 목적하고 함남 갑산군 운흥면 신덕리(甲山郡雲興面新德里)외 삼개리에궁한 국유미간지 이천오백여정보의 대부원을 당국에 제출하여 서반 총독부의 지시로 갑산군(甲山郡)에서 미간지에 실지조사를 하엿다는데 이소문이 주민에게 들리게되자 동면 보안소리(甫安所里)외 오개리 일천여호 주민들은 극히 동요하여 만일 대부만되면 해지에서 시탄을 채취하던지 흑은 소부분식 개간경작하여 겨우 연명하든것을 전연 못하게 될것임으로 실로 사활문제라고 궐긔하야 여론이 극히 놉하간다는데 금후 당국의 처분이 매우주목을 끌고 잇다한다

歲末의江界一圓 物情極히騷然

【江界】한적하든 강계지방에는 만포선(滿浦線)철도공사가 진행됨을따라 수만흔 외래로동자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철도개통을 압두고 각방면으로 물정과 긔분이 일변되는 차재에 지난달 이십일일 권총사건을 뒤니어 이번 농림학교장 피사침인소상의 잔인한참변이 또 발생되엿는데 경찰의 활동이 맹렬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범인조차 용이히 체포되지못함으로 공긔는 자못긴장되여 읍민은 전률속에 파무친듯한바 물정은 의연 소연한 중이다

安佛寺主持 朴贊範氏熱誠
産業教育兩方面으로

【咸興】함남홍원군 덕흥면 림봉리(德興面臨峰里)안불사(安佛寺)주지 박찬범(朴贊範)씨는 일즉이 산구현(山口縣) 구택대학(駒澤大學)불교과(佛教科)를졸업하고 소화칠년오월분에 전긔안불사에 주지가되이후 동면팔읍에 동면내 산업개발과 청소년선도를목적으로 제일착으로 덕업공려회(德業共勵會)란 민중단체를 조직하야 해회의 업적이 사계에 찬양되엿슬뿐아니라 소화구년도에일리는 동면내 소유년아동들이 겨우 보통학교나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취학할수업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절부근에 교실 한간을 자비 수백여원을 희사하여 건축하야가지고 학과는 심상소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 정도로 이래 수십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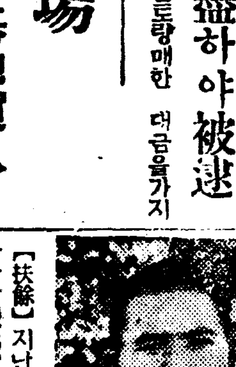
工業用大鐵工場
仁川에進出基地買入

【仁川】영등포(永登浦)와 인천에 종방(鐘紡) 일방(日紡) 동방(東紡)이 진출하는 긔획를 엿보아 이공업용 방적기전문철공장이 또한 인천에 진출하게되엿다 그자세한것을 조사하건대 대판(大阪) 서촌(西村)철공소로법서 시외룡정리(龍亭里)근방에 기지삼만여평을 매입하엿다는데 내정방침은 삼만평까지라 한다 제품은 방적기 염색기등이라하야 조선에 처음생기는 대철공장이라한다

一土兩賣한面長 運盡하야被逮

【長湍】일토량매한 대금을가지

公普校增築費로 一金千圓을喜捨
窺岩堀田氏의盛擧



【扶餘】지난십월이십일에 부여군규암면(窺岩面)에서는 수년전규사학년(二學級四學年)에 겨우학교를 세운것이 이학과하야 금년에도 입학지원생이백여명에 삼십명밧게 입학을허치못한상태이엿섯다 그래서 면내유지들은 아동교육의 불만을통감하고 이에학급연장급교사증축을 목적하고 긔성회를 조직하야 대활동한다함은 당시긔보한바어니와 그후위원들의 맹활동으로 예산금액에 거이달하게되엿는데 그중에서도 일본내지인으로서 조선아동교육계을 위하야 현금일천원의 거액을 희사한유지가잇스니 그는규암리(窺岩里)거주하는굴전부삼랑(堀田富三郞)(五二)씨로서 그는애지현(愛知縣)출생으로 자금이십팔년전에 현주지로 이주하야 우금이십팔개성상을 성심근로 하야지금은 수만원의 재산을 모으게되엿것이라한다 그런데 굴전씨는 우금것 소작인에게 대하여는도조도 달은지주들보다 염하게밧고 또한빈궁한 작인들에게 대하여는 여러가지방법으로 살길을열어준 일이 한두번이아니라는바 이에지방인사들은 동씨의 금번장거에 감사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堀田氏談 대단히미안하고 오히려 사회인사에게 대하야 붓그럽슴니다 금번소액의 금전을 긔부한것은 수년전부터 생각하여오든것을 이제야 실행한셈입니다 ◇寫眞…堀田氏

天候不調의原因? 各地에毒感猖獗

三千浦普校에는 每日百餘名缺席
家家戶戶呻吟者續出

【三千浦】경남삼천포에는 이지음계속되는 따스한일기가 급속히돌변한관계인지 독감이류행하야 집집마다 감긔로신음하는 환자가 다수이며 시내보통학교에서는 매일감긔로인하야 결석하는아동이 백여명에 달한다는바 학교당국과 일반가정에서는 크게 우려중이라고한다

平康地方에도 呻吟者가續出

【平康】겨울이래 일월두고 강원도 평강군청면 일대에는 최근때아닌 구진비가 나리어 일긔가 추엇다 더웟다하는 심히불순한관계로 독감(毒感)이대창궐하야 나날이 환자가는리가는중이데 일반가정에서는 대인소아를 막론하고 거진전부가 이에걸리어 약일주일이상식 신고를하게되어 일반은 매우 우려하는현상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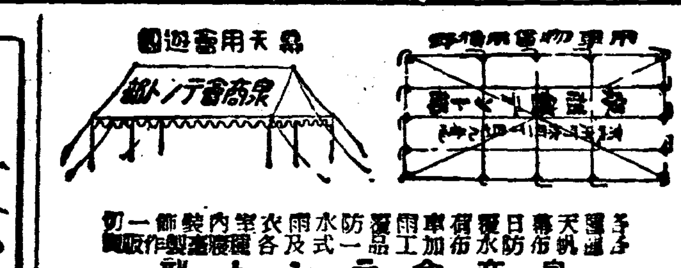
地方人事

▲金虎鎭氏(東拓平壤支店龍岡駐在事務所主任)赴任人事次自昌分局來訪
▲白鳳珪氏(鐵原)鐵城郡勸勳人事次 本報楚山支局來訪
▲金體善氏(北鎭金融組合洞井支所副理事)新任人事次 本報古邑支局來訪
▲張文華氏(熙川郡守)新任人事次本社新義州支局來訪

使用法이簡便하고 絕對廉價의加糖粉乳

明治(罐赤)コナミルク 가루젓

半ポンド入 定價·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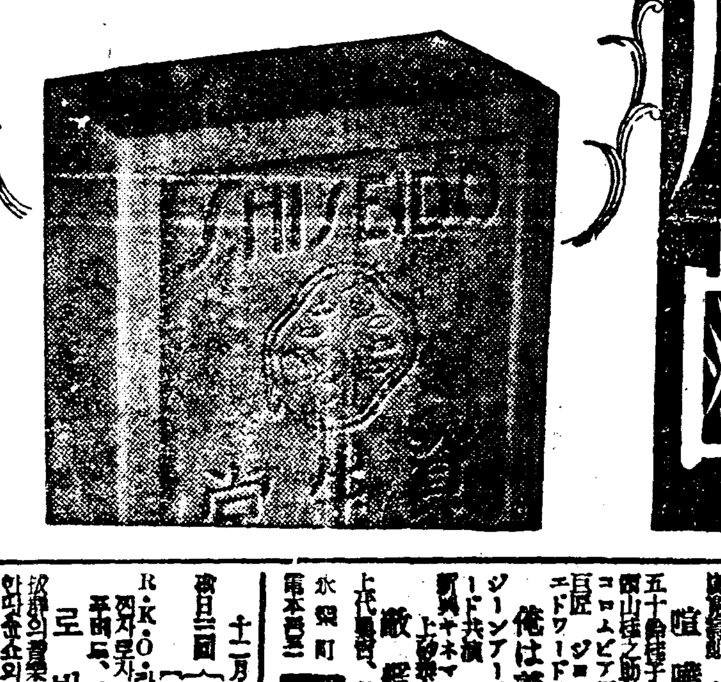


各種天幕 日覆 荷車 雨覆 防水布 加工品一式及各種衣服 防雨衣 室內裝飾一切 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七一一番・振替京城一九七九二番

恩給 長期低利貸立 他에比하야有利 信用으로 特色은照會하시면 回答
京城府長橋町一六〇 鄭商會

毛生藥 후미나인
博士創製의 털나는약
털나는藥후미나인은피부과전문田中醫學博士의創製이니 것으로서털나는대에必要한適當한殺菌作用과興奮作用과榮養作用과를兼하야주워서毛髮의發生을促進하고그脫落과지겁이를防止함
●머리病 ●젊은대머리 ●薄毛 ●脫毛 ●腋氣●眉毛적은데 ●털잘나지안는데 ●男女間에잇슬만한곳에털업고 其他털의不足, 보기실흔분은곳쓰시라.
定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說明書申込次第進呈
東京市芝田村町電車通 發賣元 東京藥院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를안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資生堂洗濯石鹸
東京銀座 資生堂

煉 齒磨의第一品! 新鮮한香味 쓴맛 좃코 偉大한美齒効果
定價表進呈

鳥捕網
漁具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一五六
網上絹絲製(小鳥用) 貳間 二圓也 參間 三圓也 五間 五圓也

指定賣渡店·大田驛前 ㊀朝鮮運送大田支店
大田藥令開市
期間 自昭和十年陰十一月十六日 至十二月末日
場所 大田府本町二丁目
主催 忠南醫藥組合
後援 忠南道衛生課 大田府 大田商工會議所 各新聞大田支局

結核性解熱劑 エルボン (에루본)
金子醫學博士述 結核療法의大意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 堺西パ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より無代郵呈

● 强力 男性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에루본特有한作用은幾多의模造品이追從키어렵운點이잇다이本劑가二十餘年來變함업시世界各國의醫學界에널이實用되고잇는所以이다。
에루본은急劇한一時的下熱을식히기딱으로藥過가不良하는것가든解熱劑와는그作用이全然달으다、于先毒素에抗拒하는白血球를增加하야階段的으로더구나嬌與하게歸熱하야病者의體力을消耗하지안코肺스스로가治療케하는힘을나게한다。本劑는또肺炎、扶斯熱、流感、肺炎其他傳染性疾患發熱에適劑다 (錠劑、粉末)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衞商店 特約店東京小西新·島居·三共

SANKYO
鎭咳祛痰에 ブロチン(부로친)
咳嗽及喀痰을가진急性·慢性의呼吸器疾患、百日咳等에……
包裝 粉末 五〇瓦、錠劑 一〇〇錠 液劑 一〇〇瓦 共他 大量入有
說明書 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압흔喉에는 오세로 オセロ 痰藥
全國各藥店에잇소
¥0.30 ¥0.50

十二月四日낫부터晝夜三回映畫 三回時間 正午十二時부부 七時부터上映 六時까지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本格的映畫完壁의烽火門을公開하야大衆압헤굿게約束하려함니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原作山本有三氏 監督五所平之助
生きとし生けるもの
川崎弘子、大日方傳 主演
齊藤達雄、坂本武、花村千惠松、飯田蝶子、小林十九二、大山健二、大塚君代、忍節子、阿部正三郎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알시ー젯트、장子、喜三主演
라스트파레ー드
親이란偉大한義로서 被殺된親友의復讐로犧牲되는義理篇
次週豫告篇
佛蘭西文壇에最高珠玉의小說을映畫化
◇稀原、名女優이본느、푸란탠테 主演
仁寺洞 電光三三公 朝鮮劇場

十四日ヨリノ名番組
歲末第三回奉仕デー二十錢均一公開
新興キネマ寶塚郞プロ超特作
原作 比佐芳武 監督 山本松男
嵐寬壽郞 主演
喧嘩一代 十卷
五十鈴桂子、荒木忍、阪東勝太郎、市山桂之助、櫻井貢、尾上紋蔵
コロムビア超特作
巨匠 ジョン、フォード監督
エドワード、G、ロビンソン主演
ジーン、アーサー
俺は善人だ 九卷
新興キネマ特作現代劇
上映券 ー 共演
新興キネマ
敵艦見ゆ 七卷
上代愛子、月形武、若葉 共演
水標町 電本四三二 中央館

十二月十日封切
映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 一時半 六時半】【特別大興行】
R・K・O・라듸오超特作映畫
찌저로자ー스、아이린던、푸렛드、아스테어 主演
로바ー다
歌劇의國帝舞踊映畫、그帝伎藝의妙한妙쇼의二重奏、豪華絢爛한絕代의美、憧憬한音樂의메로듸ー
◇R・K・O・라듸오特作映畫
파라이안、예한、장하증上、두파ー스主演
泉(새암)
映畫藝術의新境地ー 사랑과生活의泉은스사로흐르고맛을가운데잇나니、그外觀을으로부터 脫하여라、高踏的新藝術
◇嵐寬壽郞映畫社全發聲
嵐寬壽郞 主演
荒木又右衛門
次週封切
사랑의錬鐵所、夕暮의노래
朝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殖産契令의 施行規則公布

十三日公布廿日實施

❶ 殖産契令 施行規則은 總督府令 第百四十四號로써 十三日付 公布하야 今年十二月二十日부터 施行키로되바 契令施行規則의 內容은 全文三十八條로 되고 主로 그細目事項을 規定하엿다 그리고 이와 同時에 總督府令 百四十六號로써 金融組合監督規程中의 一部改正과 金組員債權理改正、所得稅令 改正을 하엿다고한다

第一條 殖産契令第八條의 規定에 依하야 殖産契가 屬할 金融組合 又는 産業組合은 道知事가 이를指定함

前項의 規定에 依하야 組合의 指定이잇슬때는 殖産契는 當該組合에 加入한것으로 看做함

殖産契는 其事務所의 所在地가 一金融組合의 區域만에 屬하는때는 前二項의 規定에不拘하고 當該組合에 加入한것으로 看做함

道知事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야 指定을 하려는때는 朝鮮總督의 承認을 受할것

第二條 殖産契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金融組合 又는 産業組合에 加入한때는 遲滯업시 左에揭하는 事項을 當該組合에 屆出할것 屆出한事項에 變更이잇슨때 亦同함

一 規約
二 事務所의位置
三 設立認可의年月日
四 主事及副主事의 氏名及住所

第三條 主事及副主事의 任期는 規約으로써 任期中의 最終의 事業年度에 關한 定時契員總會의 終結에 至하기까지 이를 伸長함을 得함

第四條 定時契員總會는 每年一回規約에 定한時期에 잇서서 主事 이를 招集함

第五條 臨時契員總會는 必要잇는때 主事 이를招集함

第六條 契員은 總契員五分의一以上의 同意를 어더 契員總會의 目的 及 其招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提出하야 契員總會의 招集을 主事에게 請求함을得함

前項의 請求가잇슬때는 主事는 一週間以內에 契員總會를 招集할것

第七條 主事 及 副主事 事故가잇는때 又는 缺員되엿는때는 契員總會의 招集은 監事가 이를 行함

主事 又는 副主事가 前條第一項의 請求가잇슨 날부터 一週間以內에 正當한 事由업시 契員總會招集의 手續을 하지안는때는 監事는 其契員總會를招集할것

第八條 契員總會의 招集은 적어도 五日前에 其會議의 目的인 事項을 示하야 各契員에게 通知를 發함을 要함

第九條 契員總會에서는 미리通知를 한 事項에對하야서만 決議를 하는것으로함

第十條 契員總會의 決議는 本令 又는 規約에 別段의 制定이잇는境遇를除하는外 出席한 契員의 議決權의 過半數로써 이를함

第十一條 主事及副主事의 選任은 總契員의 半數以上出席하야 其議決權의 過半數로써이를決함

前項의 規定은 規約의 變更並 契의合併 及 解散에關한 決議에 이를 準用함

第十二條 契員의 議決權은 平等으로함

第十三條 契員은 代理人으로써 議決權을 行함을得함 此境遇에 잇서서는 이를 出席으로 看做함

代理人은 同居의 戶主 又는 家族임을要함

第十四條 殖産契와 어떤契員과의 關係에 對하야 決議를 하는境遇에 잇서서는 其契員은 議決權을 有치못함

第十五條 殖産契는 合併 又는 解散의 決議를 한때는 財産目錄及 貸借對照表를 作成할것

第十六條 殖産契는 合併의 決議의 認可가 잇는때는 二週間以內에 財産目錄及 貸借對照表를 作成할것

殖産契는 前項의 期間內에 其債權者에 對하야 異議가잇스면 一定한 期間內에 이를 述할것을 公告하고 또所知한 債權者에는 各別히 이를 催告할것 但 其期間은 二月을 下하지못함

第十七條 債權者가 前條第二項의 期間內에 合併에 對하야 異議를 述치안는때는 이를 承認한것으로看做함

債權者가 異議를 述한때는 殖産契는 이에 辨濟를 하거나 又는 相當한 擔保를 供하거나 又는 此目的으로써 相當한 財産을 信託會社에 信託함을 要함

第十八條 合併後 存續하는 殖産契 又는 合併에 因하야 設立한 殖産契는 合併에 因하야 消滅한 殖産契의 權利義務를 承繼함

第十九條 殖産契가 合併을 한때는 二週間以內에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後存續하는 殖産契에 잇서서는 變更의 登記를 하고 合併에 因하야 消滅한 殖産契에 잇서서는 解散의 登記를 하고 合併에因하야 設立한 殖産契에 잇서서는 設立의 登記를 할것

第二十條 殖産契는 左의 事由로 因하야 解散함

一 規約에 定한存立時期의 滿了 又는 解散의 事由의 發生
二 契員總會의 決議
三 合併
四 契員의 缺亡
五 破産
六 殖産契令第十七條의 解散命令

(繼續)

米國銀買上政策 今後繼續을 聲明

十二日모겐소財務長官으로부터

銀價의 動期가展開

倫敦買入中心拋棄

【華盛頓十二日發電通】모겐소ー 財務長官은 十二日 다음과 가티 聲明하엿다

米國의 銀買上政策은 압흐로도 繼續實施할터이다 買上方法은 一般民衆의 가장 利益이 잇는 價格 時機條件을 選擇하야 實施할것으로 從來는 全然 倫敦市場에서만 買入하엿스나 압흐로는 世界의 各地에서 買上케될것이다 倫敦銀市場을 拋棄한理由에 對하야는 지금에 말할수업다

× × ×

【華盛頓十二日發聯合】世界的銀市勢의 動搖에 伴하야 여러가지의 流言이 傳하야 米國政府의 銀政策動向이 注目되는데 米國財務長官모겐소ー氏는 十二日 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米國政府가 銀塊買入을 中止하엿다는 말을 否定하고 다음과가티 言明하엿다

米國이 銀買入을 中止하엿다고함은 決코 업는일로 今週에 드러서도 每日買上한다 다만 그買上에 잇서서 이것을 從來와가티 倫敦에 集中함을 中止하엿다 그러나 오늘까지 買上이 어듸서 되엿다고함은 말할수업고 또 압흐로도 倫敦中心主義를 繼續할는지 或은 이미 오늘까지 中國에서 直接買入하는가 안는가함에 對하야는 言明할수업다

暴落對策協議

印度關係銀行業者

【倫敦十二日發電通】確聞컨대 倫敦의 印度關係銀行業者로 倫敦의 銀價暴落에 依한 市場混亂打開策을 十二日深更까지 協議한 結果

一、思惑業者에는 金融을 拒絶할것

一、銀暴落에 依한 影響을 局地的으로 解決하고 他地方에 波及지안토록 努力할것

의 二項을 協定하엿다。今回銀暴落에 依한 投資者 不安氣分으로 香上銀行株는 二磅低落하야 九十六磅이되엿는바 同株는 本年初頭에 百四十磅의 高價를 維持하얏던것이다。

大連鈔票市勢

百圓臺大慘落

【大連十二日發電通】十日以來世界的銀市勢의 暴落으로 大連鈔票市勢는 崩落하야 百圓파ー를 겨우維持하든바 十二日 前場에 特産滯貨의 買物이잇서 小康狀態를 呈하고 百一圓臺를維持하엿다 그러나 後場에 弱氣側의 賣物이殺到하고 市場은 俄然急軟化하야 現物百圓六十錢으로 一時는 弱氣側의 目標인 百圓臺의大關門이 無難히 깨여저 九十九圓七十錢으로 昭和八年二月以來의 新低價로 慘落하엿다 一面 定期는 銀行側의買支로 百圓파ー의關門을 保持케될듯하엿스나 軟派의 猛叫로 이亦畢竟百圓파ー가 깨여젓다고한다

中國幣制中心 英米가工作

日本財界의關心處

【東京電話聯合】米國政府의 銀買上醋는 中國의幣制改革을 實施하야 事實上 銀本位制를 離脫한때임으로 日本에도 影響이잇는 政治問題로 이것을 重視하는바 某處消息에 依하면 米國大藏當局은 銀購買法을 依然 繼續이라고 言明하나 買入價格의 前後의 事情이 詳細히 判明되지안코 할 政策을 着着 完了하는터이며 이때米國政府가 銀買上을 中止할것은 當然하다고 말한點이다 銀價高政策의 支持者가 銀買上의 中止를 讓步함은 一見 奇異한感을 갓게하는것인데 英國特使 리쓰로쓰氏의 中國派在使命中의 하나가 中國으로하여금 銀의羈絆에서 버서나게하랴는것이다 米國의工作을 排斥하고 英國의 磅으로 引導하랴는데잇다고 傳하는 事實을 綜合하면 매우興味가잇는일이다 銀을 中心으로한 英米의中國工作의 推移에對하야 日本財界도 多大한 關心을갓고 注視할터이라고한다

市內金價昻騰 銀價는續落

市中金價는 賣一匁十一圓七十五錢 買一匁十一圓六十五錢으로 오래간만에 各五十錢식을 올랏스며 銀價賣一匁二十四錢五厘 買一匁二十二錢으로 各五厘低이다

金塊續落

平衡稅率引下

◇…中銀改正發表

一般財界의 見解도 五里霧中의 狀態이다 그리고 注目할것은 銀界의 有力者上院議員 토마쓰氏이다 이에關한聲明을 한것이다 即同氏는 米國의銀政策은中國의 所持銀을 買上하랴는 中國은이것으로써 爲替平衡에 資金을 確立하야 磅에依하야連結

【上海十三日發聯合】倫敦銀塊의 八分의五片의 低落으로 報導되고 中央銀行은 十三日中國銀平衡稅를 更히三分七厘五毛引下하야 四割三分五厘로 改訂發表하얏는데 中國銀國有令發布以來의 最低稅率이다

移出港在米

百十六萬二千餘石

今月十日現在狀況

全朝鮮 各移出港의 十日現在 在米高는 民間所持 八十六萬六千八百五十四石 政府所持 二十九萬五千二百十二石 合計百十六萬二千六十六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萬九千六百六十七石減少이나 前月에 比하야 四十六萬四千五百八十六石의增加이다 그리고 各港別의 數量은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石)

(各港別 在米 數量表 — 日本內地米、▲釜山、▲馬山、▲麗水、▲木浦、▲群山、▲江景、▲仁川、▲鎭南浦 各港 正租·玄米·白米·糯米 民間持·政府持 [illegible])

卅萬噸程度豫想

明年硫安需給은

外安輸入二十萬噸

明年의 朝鮮內硫安需給狀態에對하야 總督府의 肥料購入에 依하야 大體圓滑한 配給을보리라는데 肥料會社別의 需給을보면 大體 自然增加를 一割를보아 需要量三十萬噸으로 推算하면 供給은 左와如하다 (單位噸)

滿化及滿鐵硫安	二五、〇〇〇
三池硫安	一〇、〇〇〇
外安其他	二〇、〇〇〇
朝窒	二四五、〇〇〇
計	三〇〇、〇〇〇

即大體에잇서 需給이맛는데 一方日本內地의 需給狀態는 來年의 外安輸入數量 十二萬五千噸에 比하야 較的困難한 狀態이다 따라서 市勢는 벌서强調를 示하야 朝窒硫安은 目下鐵道積載四圓九十錢가량이고 一方 外安은 近近鎭南浦에 五千噸輸入되는데 外安의 輸入採算은 神戶渡噸百十七圓으로 이를 朝鮮沖直로 換算하면 一叺四圓八十五錢으로되고 鐵道積載로 곳치면 五圓以上으로 되어 朝窒硫安보다 외히려 빗싸게먹는 現狀이다

暹羅米의輸入

釜山에서도要望

釜山商業會議所에서 水飴原料로 暹羅碎米의 輸入을 要望하야왓다 이것은 暹羅碎米가 一、水飴原料로 步留가 朝鮮米에比하야 二割가량 良好한것 二、價格에잇서 二割五分가량低價인것의 理由로 現在 日本內地에서도 輸入許可中이다 總督府에서는 農林局에서 米穀統制法의見地에서 愼重考慮하야 農林省과 協議中인데 大體 用途를 限定하야 輸入을 許可할 豫定이라고한다

米日爲替弱保

【京城十二日發聯合】十二日 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야 賣二十八弗七十七仙으로二仙低 買二十八弗七十四仙으로 保勢

東北米出廻로

朝鮮米賣買가少量

最近日本內地의 朝鮮米事情에 對하야 十二日歸任한 倉原米倉支配人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東京市場은 東北地方이 災害로 不作이 豫想되고잇섯슴에도不拘하고 農家에 換金이 急하야 時價以下로써팔며 또 米質이 조와서 東北米가 意外로 만이出廻되야 比較的高價인 朝鮮米는 産地의 觀望讓步로 그대지 가업다 그러나 從來 朝鮮米의 移入은 深川의定期側에 限한것으로 移入의七割은 定期側의손에 드러갓스나 今年은 廻地方面이 잇서서 直接朝鮮米를 賣付하는 傾向이 잇서 朝鮮米協會、朝鮮米倉米를 사라는 交涉이잇다

經濟界消息

◇東京爲替(十三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ノ十一 買二十八弗四分ノ三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ノ一 買一志二片卅二分ノ一

◇大阪爲替(十三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ノ十一 買二十八弗四分ノ三 對英 賣一志二片卅二分ノ一 買一志二片卅二分ノ一

○京電一割配當確實 京城電氣會社에서는 今月末로써 今期決算을 끗냇는데 今期는 電氣料金의 値下이나 期間이 짧고 電氣瓦斯의 需要期가 되엿슴으로 電氣瓦斯收入點에잇서서는 큰影響이업고 一割配當은 確實한바 總會는 來年一月二十五六日頃 東京에서擧行되리라고

○貿易協會理事會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十七日 午後二時부터 理事會를열고 다음과가튼件을 附議할터이라고

一、日滿實業協會總會經過報告

一、各道産業部長會議의經過報告

商況 (十三日)

株式 鐘新低로 鈍狀

前場保合 今前場도 新規材料업서 變方依然氣迷不脫로 閑散保合이엇스니 即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四十錢低인 百七十三圓四十錢 日産二十錢高인 七十二圓九十錢 大新四十錢低인百圓九十錢 朝新三十一圓六十錢에 各大引이고 拓新十五圓十錢이엇다。

後場鈍狀 後場은 東新百七十二圓八十錢 大新百圓八十錢 朝新三十一圓五十錢에 軟調寄後鐘新低에作하야 鈍狀裡大引

依然히不透明

午高午低採合

商品界不勢、銀塊暴落 스필株伸悩反落等으로 昨日前場東京短期東新은 百七十一圓五十錢 이란 低價가 잇섯스나 後場은 다시 百七十三圓九十錢으로 反撥되어 强調이오 今前場은 百七十三圓五十錢과 百七十一圓九十錢間往來로서 依然午高午低의 不透明한商狀이 繼續되엿는바 硬派는 最後五分間式의 狂奔을 期하는 反面 軟派로서는 모든好材는 織入되고 남기는整理低바게업다하야 特別한 新規好材料의 刺戟이업는限年內無市勢를맛고잇섯다

掉尾의狂奔? 新春爆發高?

雜株方面은 總體로 高價買玉의 整理를 要求하는人氣이나 玉石選別은 嚴重하며 東新市勢도高價採合和玉整理가 進行되는터로서 大納會를二、三日압두고 最後에 狂奔市勢가잇슬지도 모르는마큼 無市勢無氣한 市勢로만 볼수업고 萬若狂奔이 最後에도 업시 그대로 整理市勢로 越年한다면 新春好況을 期할수잇다는强氣論이잇다

大納會事項

廿七日前場限

大納會及 이에 關한事項을 如左히處理키로 發表되엿다

一、大納會는 十二月廿七日 前場限

一、十二月廿七日 前場의賣買玉은 當日大引三十分後 受渡申告를하고 開函受渡를함

一、休會中(廿七日부터 一月三日까지 八日間)의日步決定率은 廿七日午後 開函에依하야 決定한 日步로서 休會中의日步는 廿七日 徵收함

一、諸證據金、手數料、諸計算金의徵收에對하야도 亦是前項과如함

一、休會中에 乘替할 繰延玉은 廿七日 이를乘替할것

實物株前場取引

▲京東銀道 三〇〇▲北鮮製紙 一四〇▲日滿아루미 一九〇▲月島機械 四〇▲東洋拓殖 三五〇▲龍山工作所 三〇〇▲東滿聖早 六〇〇▲京南鐵道 二〇〇▲朝鮮柔酒 三〇〇

(賣買高 三二〇枚)

鍾紡二割五分据置

【東京電話電通】鍾紡에서는 十三日重役會를開하고 今期利益金處分案(年二割五分据置)을 內定、明年一月二十三日定時株主總會에 附議키로 決定하얏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强弱變方傍觀으로 市中閑散不振을 呈하얏다

佛貨四分利 一八六、八〇

朝米 動蕩殆無 細刻

前場膠着 昨後場阪地 三十圓七十錢止와共히 二十八圓六十七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値 三十圓七十錢인 二丁高를 據하고二十八圓六十八錢으로 場을始한後 阪地四圓七十錢으로도 六錢까지 返戾止場임에도 當地는 意外에惡態이 업시六十八九錢에서保合하다가 六十九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八圓七十錢에 一丁高로 寄付한後 五節六十八錢으로 下落한後 同値이고 一丁高로 六十八錢에 止場하엿다

大阪七人組의… 年末、新春觀

大阪七人組란사람들(大谷、辻、岸田、福井、青木、卯建、西村)의 年末 新春觀을 紹介하면 如左하다

岸田＝年末에 東新百六十八圓에서 百七十五圓間保合이면 十二月中旬부터 雜株買에 入하고 來春은 金融緩慢으로 電力株、雜株一齊爆發 年末東新이 萬若百七十八圓까지가면 八十圓以上으로飛上

福井＝來年度는 大豫算結果 來年도 赤字公債發行으로 今年과 不變이면 諸株漸增 一月末—二月에下押 三月—四月의豫算實行期에入하야 雜株中島進

青木＝現在大新을보아 年末큰 市勢가잇고 來春十日戒前後에 天井、정작 市勢가 恢復되기는 來年下半期、그로부터 큰市勢展開

卯津＝實買高百二十七萬이란 것은 明年큰市勢를 暗示한것、年內도 東新二百圓臺回期、來夏에는 五百圓臺現出、三、四月頃 天井

秋原＝週期率으로도 來年큰市勢無疑

大谷＝靑木君과同感

保勢로終始乎

本年末까지

昨今의 各地市勢는 幾分軟態에 傾하는觀이잇스나 그러나이러타할만한新材料를發見하지못하고 다만 仕手의關係로 一時的軟調를 示함이아닌가한다 勿論止米의事情으로보아서는 産地農家가 아무리賣惜한다할지라도 換金急의賣物이 아니할수업다 政府米價에 關하여는 本月五日에 開會하엿든 格差委員會에서 決定된것으로 豫測하엿스나 何等의決定을 보지못하게 되엇슴으로 買氣依然 委縮되어 容易히 鼎騰을許하지 안는모양이다 그러고 日本內地는 古米와 蓬萊米等을 混入하야 白米를 製造하는關係上 自然 朝鮮米의 買進은 稀少하며 딸아서 朝鮮內에는 그만큼 正米가 積滯하야 올으지못하는 現象이다 이러한 情勢로보아서는 一落을 告할것도하나 二年繼續의 凶作인 大强材가 潛在한만큼 [illegible]

公定米價注目

發表後엔分歧?

最近米界에서는 來十七日에 發表될新公定米價가 如何한 範圍로 決定될지 此를注目하는中이며 從하야 사지도 팔지도안코 當分靜觀主義를 가지고잇다 一般이 觀測하는바에依하면 最高公定價格은 二年繼續凶作의 關係로 昨年보다 一圓程度의 引上을 보게될것으로 最低公定價格은 昨年그대로 두리라고 認하는모양인데 此가事實化하는때는 幅이 例年보다 擴大할것이며 따라서 兩方共히 用武할 餘地가 多할것이다 何如間 新公定價格이 發表되는때는 此際이만 極度의 保勢를 繼續하는 一波紋을 惹起할것으로 觀測하고잇다 果然政府의 方針이 一圓以上을引上을 決定하야 米價의 騰貴를 促進할지 此亦考慮할 必要가잇다 政府가 買上을 決定하지아니함은 米價의 昻騰을 念慮함으로 公定價의 引上도도한問題일모양이다 果如何?

가 十七八九日경이다 今年末까지는 保勢로 終始하기 떠한 波紋을 일으킬지 몰으나 키섫하다. 何如間 越年後에는 어로 無意히 低迷될이라고도 豫想 方으로서도 警戒를 要하는關係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況 (大阪電話)

政府의 買上發表에 期待를두고 開市된 委員會의 決定을 觀望하고잇다 農家도 歲末迫頭로 期로보고잇슴으로 賣氣를 呼하야 公定價格一圓引上은 이미一般이 豫想하고잇슴으로 影響이 업고 政府의 何如하기까지는 積極的으로 賣出方 [illegible]

賣方 地場筋 中東側 [illegible]

買方 株式側、地場筋 [illegible]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大阪期米 先限、◆市中金價 [illegible]

◆株 東新、日産、朝新、大阪人絹、大阪綿花、大阪砂糖、公債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의 釘付狀態로 賣買共히 氣迷 길허서 市況은 極度로 閑散인 九仁三等二十八圓二十五錢 四等二十七圓九十五錢 一等白米三十圓五十錢

仁川閑況 賣買共히 形勢觀望이오 取引이 極히 消化되어 氣配幾分弱含인 九仁三等二十八圓二十五錢 四等二十七圓九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一圓七十三錢

釜山小弛 幾分軟化하야 六千五百叺으로 買物이 尠留한 市場이나 日本內地定期側의 準備와 必需取引旺盛으로 取引이 잘 進捗되어 五、四〇四叺의 實行이 잇섯다 市勢區區이나마 上級品은 十錢低唱인 角ㄱ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四錢

大邱不振 産地繼續하야 動搖 機待人氣이나 低價는 賣惜인 一方 定期의 鈍調로 現在의 價位로는 買氣가업고 取引이 極度로 不振하야 氣配不變인 角ㄱ三等二十八圓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十五錢

群山保合 定期釘付狀態이나 僅히 小口의 換邦的實物이 出廻되는 程度에 不過코 日本內地의 實行不振과 相俟하야 市況이 極히 閑散인 ◆三等二十八圓二十七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不動 淸算이 低價釘付로 産地도 氣迷이나마 激動지 안흠으로 依然取引無活氣을 不止하야 場面이 極히 閑散하야 ◆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趙後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아세아證券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ノ一 日生ビル一・二號室 電話本局(代表)二三三四 四〇九八七 內外業界 아세아日報 進呈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二一六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地方注文 賣買引換代金 送料先要

金白銀金 賣買分析 金城商會 京城鍾路一丁目二十二番地 電話光化門七番 二九三七 地方注文 代金引換賣買 (送料先要)

金融 十二日

◆海外經濟 ◆新鮮行券 ◆日本行券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高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十二日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十二日

◆京城綿系布市勢 ◆日本麥粉市勢 ◆치카고期米 ◆綿油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綿粕沖價 [illegible]

株式 十二日

◆朝取短期 ◆鎭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illegible]

期米 十二日

◆新取期米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二日

◆大阪綿系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系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